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아는대로 진실을 말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2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10월 25일)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방향성 없는 포교전략 장애인 불자 '소멸위기'

위기의 장애인포교 현주소와 과제

㊤ 장애인포교 현황과 문제점

㊦ 장애인포교의 대안과 과제

현재 활동중인 단체는 10곳
'장애인복지' 분야 제외하면
5곳 불과…규모 · 활동 쇠퇴

1990년대 창립한 단체들 중
혜광불자회 · 아나율회 해체
다른곳도 사실상 명맥만 유지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교계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의 우려가 깊다. 장애인 포교가 '장애인복지' 혹은 '장애인 신도 관리' 수준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포교전략이 없다면 20년 후 장애인불자는 전멸할 것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발언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2011년 조계종 포교원이 장애인포교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전법단을 창립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장애인포교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모순적이게도 1980~1990년대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이 심각하게 낮고 편견도 심했던 당시, 장애인불자들은 자발적으로 모임을 꾸려 불자회를 만들기 시작했다.

당시 대표적인 장애인포교단체로 손꼽혔던 곳이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혜광맹인불자회, 대구지역의 대광맹인불자회, 대전맹학교 불자회였던 아나율회, 부산지역의 부광시각장애인불자회, 청각장애인불자모임인 조계사 원심회 등 5곳이다.

이들 단체들은 1990년대 무렵 각기 왕성한 활동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30년이 지난 현재 상당수가 쇠퇴했다는 지적이 많다. 당시 가장 규모가 컸던 혜광맹인불자회와 맹학교 불자회였던 아나율회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성기 회원수만 300명을 넘는 등 가장 규모가 컸던 혜광맹인불자회는 2000년대 초 자체적으로 요양원 겸 포교당 건립불사를 진행할 정도로 토대가 굳건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도 크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혜광맹인불자회는 2000년대 초 장애인불자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 강원도 지역에 요양원 겸 포교당 건립불사를 진행했고 어려움 속에서도 원만회향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지역에 골프장이 건립되면서 건물을 이전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사실상 사기를 당하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재정적인 문제로 고충을 겪었다. 단체가 본격적으로 와해되기 시작한 것은 구심점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고령으로 잇따라 세연을 접으면서부터다.

혜광불맹인자회에서 활동했던 양만석 거사는 "당시 장애인불자들의 노후에 대한 고민이 워낙 크다보니 십시일반 돈을 모아 불사를 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근거지인 서울을 떠나 지방에서 불사를 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아나율회는 1990년대 대전맹학교 불자회로 창립했지만, 교장이 기독교인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강제 해산됐다. 당시 아나율회와 교류했던 관계자들은 "이후에도 회원들을 중심으로 학교 밖에서 활동을 이어갔지만 구심점이 없어 지속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며 "2000년 중반 이후에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른 단체들은 다행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불교계 포교단체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회원 중심의 신행모임으로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광맹인불자회는 어려운 여건에도 사무실 겸 포교당을 임대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된 회원수는 300명이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회원은 50여 명 정도. 일일찻집이나 모금활동을 통해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으며, 정기법회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젊은 장애인불자나 신규회원 유입도 간혹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한계가 적지 않다. 이경림 사무국장은 "비록 임대 이지만 장애인 분들이 단독으로 법회를 할 수 있는 법당과 사무국이 있기에 아직까지 유지가 가능했다"며 "재개발 때문에 법당을 또 이전해야 하는데 항상 재정난에 시달리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전했다.

부광시각장애인불자회는 회원 수는 많지 않지만, 자체공간인 부산 금광명사를 중심으로 지도법사 스님들을 초청해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조계사 원심회는 청각장애인불자회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불교수화통역사 양성 및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영상 제작 등 지원단체의 성격이 더 크다.

2000년대초 시각장애인모임인 생명사랑아나율회(이후 한국시각장애인불자회로 개칭)와 문화포교로 특화된 보리수아래가 창립했으며, 장애인복지 분야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법인 광림사연화원(이사장 해성),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원종), 강북장애인복지관 불자회 바라밀, 영주시장애인복지관 금강회, 성북장애인복지관 불자회가 운영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추위도 코로나도 잊은 간절한 기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2월 3일 오전 서울 견지동 조계사에서는 수험생 학부모들이 부처님 전에 수능수험생의 고득점과 원만회향을 희망하는 촛불공양과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처음 치러지는 수능인 만큼 기도현장의 모습도 예년과 달랐다. 법당에 들어갈 수 없는 대중은 대웅전 마당에 모여 방역수칙 속에서 기도에 동참했고, 촛불공양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질서 있게 진행됐다. 쌀쌀한 날씨와 다시 심각해진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수능수험생을 생각하는 모정불심의 간절한 마음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코로나 3차 대유행… 불교계 방역 강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강좌' 종무수칙 공지

올해의 불서 등 시상식들 취소
서울지역 사찰 12월 13일까지
법회, 비대면으로 행사는 금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실상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불교계는 종무기관과 사찰 방역 강화 지침을 시달하는 등 방역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은 12월 4일 서울 권역 사찰들에게 지침을 시달하고 "오는 12월 13일까지 법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라"고 공지했다.

조계종 총무원의 지침에 따르면 법회는 비대면으로 전환되며, 기도를 제외한 사찰 주관 행사, 모임은 모두 중단된다.

사찰 상주대중의 공양을 제외한 신도 및 외부인의 대중공양은 중단되며, 가족끼리 참여하는 49재도 공양은 제공되지 않는다. 공용 음수대 운용이 금지됐다.

또한 사찰 상주대중은 기도, 예불 집전 시에도 사찰 내 모든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공간은 수시로 개방해 환기하고, 손씻기 생활화, 손소독제 사용 등으로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에게는 강화된 종무수칙을 11월 27일 공지했다. 조계종 총무원의 강화된 종무수칙은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예정됐던 대면행사는 전면 중단된다. 민원실과 불교중앙박물관 운영도 중단되며, 언론사 취재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지하공양간의 외부인 출입은 철저히 통제된다. 또한 종무원들은 시차출퇴근제와 시차점심공양을 시행하며 출근 시 체온을 측정하고 '자가측정 대장'에 체온을 기입해야 한다.

조계종 종단 차원의 코로나19 방역이 강화됨에 따라 각 단체들은 예정된 행사를 취소, 혹은 연기하고 있다. 먼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손창동)는 11월 21일 공불련 학술세미나를 긴급 취소했다.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도 12월 4일 예정됐던 제17회 불교출판문화상 시상식을 취소했으며,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 총동문회도 이어 12월 11일 개최 예정인 송년의 밤 행사를 취소했다. 해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도 12월 9일 진행 예정이던 정기총회를 취소하고 방역 지침 준수에 힘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예비역장성불자연합회의 경우 12월 6일 한차례 연기를 통해 약식으로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려 했으나 12월 20일로 재차 연기했다.

예불회 관계자는 "한차례 연기를 통해 행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광범위한 확산과 행사 장소에 참여한 대중들의 확진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됐다. 계속해서 확산 추이를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사찰 측도 종단 지침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봉은법회, 신행연등, 풍물 등 사중 모임 중단과 함께 불교대학과 경전학교 등을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여 진행하며, 도서관과 같은 공공 운영 시설도 폐쇄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사찰 내 있을 시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명시했다.

조계종 측은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확산되면서 서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됐다. 이에 종단에서는 서울 지역 사찰 220여 곳을 대상으로 강화된 지침과 코로나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중앙종무기관도 선제적 방역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2021년도 상반기 출가 안내

집중등록기간
2020년 12월 ~ 2021년 2월 (2021년 가을 수계 대상)
※ 위 등록기간은 출가 후의 가을수계 일정에 맞춘 권장기간이며, 출가는 등록기간과 상관없이 365일 가능합니다.
※ 은퇴출가자의 경우 위 등록기간에 행자등록 시 2022년 봄 수계 대상자가 됩니다.

대 상
출가의 원력을 세우신 분이라면 누구나 (1971년 12월 31일생까지, 만 13세 ~ 50세 이하)

출가 가능사찰
전국 대한불교조계종 사찰

등록절차
① 전국 대한불교조계종 사찰 중 본인이 원하는 사찰을 선택
② 사찰에 거주하는 스님과 출가에 대해 상담 후 출가

출가혜택
① 출가 후 생활에 필요한 주거, 교육, 의료 등 지원
②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③ 입원진료비·요양비 지원

소년출가자(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 청년출가자(만19세 이상 만30세 이하) 혜택
①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등록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② 대학원 진학 시 장학 지원
③ 군법사 지원 시 특별 선발
※ '소년출가자'는 6개월간의 행자교육과정이 면제됩니다.

문의 : 02)2011-1801, 1817 / 출가상담전화 : 1666-7987

자세한 사항은 조계종 출가사이트 http://monk.buddhism.or.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상월결사, 교구본사 걷기순례로 이어진다

고창 선운사 11월 28일 본말사 순례 진행

고창 선운사=노덕현 기자,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가 내딛는 걸음걸음을 고행이라 여기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이 행원의 과정이요, 의지의 실천으로 삼겠나이다. 국민들이 편안하여 화합이 이뤄지고,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여 화목하며, 한국불교의 미래가 환하게 밝아지도록 일심으로 정진하겠나이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회향한지 한 달이 지난 11월 28일. 만행결사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불자들의 노력이 조계종 교구본사 차원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가 11월 28일 본·말사 걷기명상 성지순례를 개최한 것이다. 제22교구본사 대흥사가 동안거 후 걷기순례, 상월선원 결사대중이 내년 10월 경 삼보사찰 순례에 나서기로 하는 등 코로나 극복과 국민화합에 대한 불자들의 바람이 걷기순례란 새 문화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선운사가 28일 개최한 걷기순례에는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과 함께 만행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 지객 원명 스님 등 상월선원결사대중들과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 등 호남사찰 본사 주지 스님들과 중앙종회 부의장 만당 스님 등 스님들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선운사 신도회, 정충래 동국대 이사 등 불자대중 50여 명도 함께했다.

당초 선운사 측은 상월선원 천막결사와 만행결사 정신을 이어 본사차원서 매월 1회 걷기명상 순례를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11월 순창 강천사에서 만일사까지 70여 스님들이 걷기순례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선운사 측은 10월 준비모임 성격으로 내소사서 월명암까지 걸으며 이번 순례를 준비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선운사 산내암자인 도솔암과 참당암을 순례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순례에 앞서 인사말에서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2600년 전 부처님께서 그러셨듯이 오늘 자비순례는 도량내 머물던 수행과 포교가 밖으로 나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라며 "1600여 년을 이어온 우리 한국불교는 오늘날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일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채 산중에 머무르는 불교가 되지 않았나 되짚어 본다"고 자성의 발언을 이어갔다.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선운사 본말사 스님들과 불자대중들이 선운사와 도솔암을 잇는 산길을 걷고 있다. 선운사 측은 선운사 동백꽃으로 장식된 '자비순례 선운사' 모자를 준비해 이번 본말사 순례가 국난극복을 염원하는 자비순례의 연장선임을 밝혔다.

본말사 불자대중 50여명 참석
상월결사 대중도 함께 참여해
도솔암서 코로나 극복 기도와
참당암서 선원 수행정진 응원
지역사회 애환 함께 어루만져

경우 스님은 "우리는 산중에서 벗어나 길거리로, 지역민의 삶속으로 다가가고자 한다. 도량에서만 이뤄졌던 나를 위한 기도와 수행을 이웃과 사회를 위한 기도와 수행으로 바꾸고자한다"고 발원했다.

순례 대중들은 발원문 낭독을 마치고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선운사 주차장에서 도솔암까지 산길을 나섰다. 총 10여 km의 짧은 거리지만 추운 날씨와 산길임을 감안해 자비순례와 달리 비교적 느린 속도로 순례는 진행됐다.

3km를 걸었을까. 도솔암 미륵불로 일컬어지는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이 순례단을 맞이했다. 거대한 마애불 앞에서 참배한 순례대중은 막간 휴식시간 동안 주지 경우 스님의 마애불에 대한 설명과 동국대 부총장 종호 스님의 결사의 불교사적 의미를 경청했다.

잠시 휴식을 취한 순례대중들은 마애불 위에 자리한 도솔암 내원궁을 참배했다. 결사대중은 도솔암 내원궁으로 향하는 108계단도 코로나 사태로 시름하는 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거뜬히 올랐다. 순례대중은 내원궁에서 코로나 극복을 바라는 일심으로 참배하고 선운사 선방이 위치한 참당암을 거쳐 선운사 공양간에서 함께 대중공양을 했다.

이날 걷기 순례에 참여한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은 상월선원 결사대중에 동안거 해제 후 해남 걷기순례를 함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며, 백양사와 송광사 주지 스님 등도 관심을 표했다.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은 "수행은 행주좌와 어묵동정 이어져야 한다. 걷는 수행을 통해 승풍을 진작하고 수행문화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종단에 25개 교구본사가 있기에 상월선원 결사대중과의 순례로 사찰순례의 새로운 전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순례에 참여한 대중들은 앞으로 진행될 사찰에서의 걷기순례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박정선 고창시니어클럽 시설장도 "코로나로 인해 어르신들의 생계수단이었던 일자리도 없어지고 지역민들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불자들의 순례로 부처님 가피가 내려 하루 빨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

문화재보유사찰위, 12월 1일 면제 기준 조정
민주유공자·기초수급자 등 입장료 면제 가능
임산부도 혜택…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

사찰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 국가유공자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이 면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와 민주화운동 유공자까지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위원장 덕문)는 12월 1일 회의를 열고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기준을 새롭게 조정·확정했다.

이는 지난 11월에 열린 중앙종회 제219회 정기회에서 '사찰문화재보존 및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를 통해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기준을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종법이 개정됐다.

그간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대상은 7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1·2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군인 등 국가에서 정하는 통상적 기준으로 반영돼 왔다. 하지만, 국가 기준이 변경되고 대상에 대한 표현이 바뀔 때마다 종법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커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에서 면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는 면제 대상 기준을 각 유공자와 사회적 약자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위원회가 확정한 면제 대상 변화로 눈길을 끄는 것은 각종 유공자다. 면제 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18개 분류의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로 확대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의사상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임산부와 보호자 1인,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도 문화재구역입장료가 면제된다.

기존의 1·2급 장애인으로 한정됐던 장애인 대상 면제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됐으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보호자 1인도 무료 입장이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학생인솔을 위한 초·중·고 교원과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 관람객 인솔을 위해 입장하는 사람도 입장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7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면제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노인에 대한 면제 기준 연령 상향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보유 사찰들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노연령층에 대한 배려와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을 살피고 결정키로 했다.

신성민 기자

"도난 성보 환수 노력에 감사"

원행 스님, 표창 수여
안상돈 변호사 등 5명

도난 성보문화재 환수의 공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2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도난 성보문화재 환수 공로자에게 표창패와 표창장을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표창패는 KT 법무실장 안상돈 변호사가 받았다. 안 변호사는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된 도난 불교문화재 은닉 소송에서 피해사찰들을 변호하며 도난 문화재 몰수 판결을 이끌어냈다.

표창패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강상우 경위·박병호 경위·이경환 경사·한상진 문화재청 사범단속단장이 받았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소중한 성보이자 우리 민족의 문화재를 부당한 방법에 의해 도난당했다. 이를 제자리에 모실 수 있게 도와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도난 문화재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처음부터 혜일 스님이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셨고 경찰청, 문화재청 관련 실무자들도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도난 성보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신성민 기자

"韓日불교 교류 통해 양국 관계 회복"

원행 스님, 주한일본대사 예방 받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한국과 일본의 불교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 회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원행 스님은 12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원행 스님은 "2020년은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40주년을 맞는 해로, 한국에서 성대하게 대회를 진행하려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진행이 어렵게 됐다"면서 "한·일 양국에 얽혀있는 현안들이 있지만 양국 불교계의 교류 활동이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도미타 코지 대사는 "사회문제, 평화, 환경 등의 의제는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간의 대화도 필요하다"면서 "한·일 불교계가 문화 교류 등을 통해서 많은 소통과 대화가 이어지기를 부탁드린다. 대사관에서도 언제든지 도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템플스테이 온택트 세미나
전통사찰 관광자원화

송출 2020.12.14 |월| 2시
BBS불교방송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BBSKOREA)
주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주관 BBS불교방송

주제 1 전통사찰순례 관광의 성과와 새로운 모색
발제 : 이재수(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조교수)
토론 : 김정원((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 연구원)

주제 2 순례관광 유사사례분석(국내, 해외, 이웃종교)
발제 : 박부영(불교신문 상임논설위원)
토론 : 정란수(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겸임교수)

주제 3 템플스테이와 사찰순례연계 관광 자원화 방안
발제 : 김상태(한국관광문화연구원 초빙 석좌 연구위원)
토론 : 김일중(한국관광공사 야간관광TF팀 차장)

BBS불교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시 시청 가능합니다.
BBS 불교방송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장애인포교 무관심 여전… 개인 원력에만 의존

장애인구 고령화 가속화
젊은 장애불자는 극소수
불자규모 데이터도 없어
시대변화 따른 전략 부재
낮은 사찰 접근성도 문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장애인을 향한 사회적 인식은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포교'를 위한 불교계의 관심이나 노력, 포교전략 수준은 3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전히 일부 개인의 원력에 의존도가 높죠."

"지역마다 장애인을 향한 기독교계 선교는 워낙 적극적인 데 비해, 불교계는 관심도 적고 각 단체들의 사정도 여의치 않죠. 장애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라면 20년 뒤 장애인불자의 존재 자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불교계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장애인 포교'는 사실상 30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포교의 필요성만 지속적으로 제기될 뿐 정작 장애인불자 수나 장애인불자단체 현황 등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없다. 특히 시대적 변화에 맞는 포교전략의 부재는 결과적으로 장애인불자단체 활동의 쇠퇴, 그리고 신규장애인불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각 단체의 구심점으로 활동했던 회원들 대부분이 이미 고령인 반면, 젊은 회원들의 유입이 줄면서 자연히 활동도 침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단체 간 연대도 점차 느슨해지면서, 공동의 포교전략을 고민하기보다 개별 단체 운영과 회원 관리 등에 매몰되면서 점조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장애인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대와 조직화를 통한 포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개별 단체들이 연대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정보공유를 통한 상호발전은 물론, 자연히 구심점 및 컨트롤타워로 이어져 장기적인 포교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 토대도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장애인포교 활성화를 위해 조계종 장애인전법단이 출범하면서 기대가 모이기도 했지만,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장애인복지 분야 위주로 구성돼 있고 예산도 부족해 성과는 미비하다는 평가가 많다.



2018년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장애인 불자 대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장애인포교 자체가 원력을 가진 일부 개인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어린이 포교나 청소년 · 대학생 · 청년 등 계층포교의 경우, 조계종 포교원이나 대표적인 포교단체를 중심으로 포교전략 마련 및 연구가 이뤄지는 반면, 장애인 포교는 여전히 소수의 특정인이 이끌어가는 시스템에 가깝다.

이승배 장애인전법단 과장(영주장애인복지관 부장)은 "대표적인 예가 보리수아래의 최명숙 회장과 광림사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 등이다. 이분들이 활동을 중단할 경우 단체가 지금처럼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장애인불자단체들 역시 회장 혹은 실무자의 원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장애인포교가 제대로 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일선사찰과 종단, 스님들의 여전한 무관심과 인식부족이다. 장애인불자들이 지속적으로 신행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회에 참여하고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필수적이지만, 대다수 사찰의 경우 장애인 접근성이 낮아 방문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해성 스님은 "사찰의 경우 문화재 사찰이거나 전통사찰이어서 편의시설 마련이 힘든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지 스님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태봉 한국시각장애인불자회장도 "장애인들이 마음 편하게 법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찰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인식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편견은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어려운 형편의 장애인불자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방식을 '장애인 포교'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장애인 포교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와 달리 국가정책상 복지의 수준이 높아졌다. 이에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포교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젊은 장애인들을 불자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복지'가 아닌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컨텐츠 개발을 통해 불교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불교문화사업단 한국관광공사 언택트 콜라보 눈길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이 '2020사찰음식 주간'을 맞아 한국관광공사 런던지사와 연계해 11월 30일 온라인 사찰음식 조리법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온라인 강의는 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사찰음식 전문교육관 '향적세계'에서 정관 스님이 강의와 요리를 진행하면, 글로벌 여행문화 플랫폼인 'Culture Trip(컬처 트립)'을 통해 사전에 참가 신청을 완료한 온라인 시청자들이 이를 보며 요리를 따라하는 프로그램이다. 정관 스님은 사찰음식에 대한 소개와 함께 연근 견과류 조림, 감자전 조리법을 시연했다.

이번 영상은 한국관광공사 런던지사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으며, 이후 사찰음식 주간 웹사이트에 강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통해 한국의 사찰음식을 친숙하게 소개하려고 했다"며 "조리법뿐 아니라 사찰음식이 지닌 수행의 정신도 함께 소개함으로써 전 세계에 한국의 불교문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소외이웃 따뜻한 겨울나기 도와요"

청계사, 자비나눔 행사
천태종 · 맑고향기롭게도
이주민 등에 김장 나눔

매년 겨울 소외이웃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불교계 나눔 행렬이 올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불자들의 자비온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층 더 소외된 지역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가구, 이주민가정 등에 적지 않은 힘이 될 전망이다.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는 11월 25일 '2020년 이웃돕기' 행사의 일환으로 저소득가정 및 독거 어르신들에게 자비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청계사 주지 성행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은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울력을 통해 4000여 포기 김장을 담아 의왕시청계동지역사회복지보장협의체, 의왕노인지회, 의왕시립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녹향원, 야탑동과 정자2동 성남독거어르신, 안양교도소 등에 이웃돕기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도웅, 천태종 사회부장)는 11월 21일~11월 24일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등 이주민공동체와 고려인단체 등을 방문해 자비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전달한 후원물품은 관문사(주지 월장)에서 후원한 김장김치 3kg 250박스를 비롯해 쌀 250kg, 달력 1000부, 고구마 100kg, 의류 1000점 상당이다. 또 손 소독제와 손 세정제, 마스크 3000개 등 코로나19 예방물품과 초콜렛 등도 함께 전달됐다.


12월 1일 탑골공원에서 원경 스님(사진 오른쪽)이 어르신들에게 점퍼를 나눠주고 있다.

시민모임 (사)맑고향기롭게(이사장 덕조)도 11월 26일 23개 동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가정, 쪽방촌 거주민 460세대에 자비의 김장을 나눴다. 김장김치 나눔은 맑고향기롭게가 매주 진행해 온 반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특히 올해 김장나눔은 예년과 달리 자매결연 업체를 통해 납품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 원각사(주지 원경)가 운영하는 노인무료급식소는 12월 1일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에게 겨울 점퍼 300장을 전달했다. 이날 나눠진 겨울 점퍼는 서울대 병원에서 200장, 법무법인 세종에서 100장을 후원받은 것이다.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는 2018년 점퍼 200장으로 나눔행사를 처음 시작한 이후 지난해에는 400장을 후원받아 전달했다.

이밖에도 천안 아우내은빛복지관(관장 이수경)과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 구립대조노인복지관(관장 이동열) 등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관도 지역 소외이웃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을 이어갔다. 송지희 · 노덕현 기자

불교계도 한반도 평화캠페인 '속속'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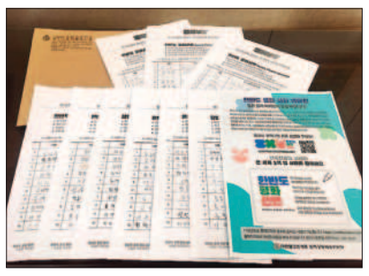
세무사불자회 등 서명 전달
단체의 동참으로는 첫 사례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염원하는 국제적인 서명운동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관련, 그동안 참여율이 저조했던 불교계에도 속속 동참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해당 캠페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범국민운동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명예대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집행위원 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 이하 민추본)는 "최근 세무사불자회와 청도 운문사를 통해 150여 명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캠페인이 발족한 이후 불교계에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차원의 동참을 제외하면 단체 연명은 이례적이다.

민추본에 따르면 세무사불자회의 경우 지난 11월 25일 남창현 회장이 5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민추본 사무실을 직접 방문했으며, 청도 운문사는 대중 스님들과 신도 100여 명이 연명한 서명용지를 모아 등기로 발송했다. 특히 운문사는 사찰 차원에서 캠페인에 동참한 첫 사례다.

민추본 관계자는 "그동안 불교계는 남북교류 및 협력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음에도,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행 중인 이번 캠페인에는 사실 동참률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청도 운문사에서 등기로 온 서명용지. 사진제공=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은 남북 정전협정 70년인 2023년까지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전세계 1억 명의 서명과 지지선언을 받는 것을 목표로 올 7월 출범했다. 지난 9월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한국종교평화회(KCRP)의 대표의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7대 종교계 수장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캠페인 동참을 호소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민추본은 11월 19일 전국 주요사찰과 포교 · 신행단체 등에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홍보리플렛과 서명용지, 동참을 요청하는 공문 등을 발송했다. 단체와 개인 등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02)720-0531 송지희 기자

종각과 범종 불사 권선문

현광사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남산에 위치하고 있는 대가람의 법화도량으로 법화행자님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법화경 광선 유포를 위해 신명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불자님들께 현광사의 법화도량에 종각과 범종을 불사하고자 권선하오니 많은 불자님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이 바랍니다.
특히 법화도량의 범종소리는 법화의 메아리가 되어 세상을 청정하게 하며, 지옥 중생과 유주무주 고혼들과, 천상계의 사람들이 제도 되고,
불사의 공덕은 생전에 바라는 소원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동참 불자는 성불의 길에 들 것입니다.
종각과 대 범종 불사가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기를 간절이 발원하오며, 불자님의 개개인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력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사 접수안내

종각불사금 대들보 : 1인 2백만원, 기둥 : 1인 100만원
서까래 : 1인 5십만원, 기타 : 1인 1십만원

대범종 범종상단(생년월일, 성명 새겨드림) : 1인 2백만원
범종중단(생년, 성명 새겨드림) : 1인 1백만원
범종하단(성명 새겨드림) : 1인 2십만원

상담전화 : 054-773-6605, 773-6607
계좌번호 : 농협 351-1121-8793-23 현광사
주 소 : 경주시 내남면 내외로 1130-14(현광사), 울산시 남구 거마로 86(현광사)
불사기간 : 2020년 12월 1일 부터 2021년 6월 30일 까지
준공 회향법회 예정일 : 2021년 10월 말일경 사전에 공지함

재단법인 불교교단 실상연화종 현광사 주지 동광 합장

유리건판, 북한 불교문화재를 말하다

국립중앙博 · 미술사연구회 '유리건판' 주제 학술대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선총독부가 촬영했던 유리건판 사진은 근대기 문화재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조선총독부가 우리나라의 고고, 미술, 건축, 역사, 민속 등과 관련된 유적과 유물, 현장을 담은 유리건판 3만 8170장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지금은 볼 수 없는 북한 내 불교문화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같이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유리건판 사진에 나타난 북한의 불교문화재를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미술사연구회와 공동으로 11월 27일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을 통해 본 한국미술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유리건판을 중심으로 북한 불교 조각 · 회화 등을 분석하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정명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은 유리건판으로 촬영된 북한 불교 회화를 분석하며 평안북도 영변 보현사의 '수충사(酬忠祠)'에 현액된 서산 · 송운 대사 진영을 주목했다. 정 연구관에 따르면 1909년 촬영된 유리건판에는 서산 대사와 함께 승병장으로 활약했던 사명 · 뇌묵 대사도 함께 봉안돼 있었다.


개성 용흥동 화장사 '지공화상좌상' 유리건판 사진. 한국에는 희귀한 고승 초상 조각이다.


보현사 '서산대사 진영'의 모습. 임제종 무상 대사와 함께 봉안돼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일제 촬영 유리건판 통해
北 불교 조각 · 회화 분석
망실 · 새 도상 찾을 자료
도갑사 불상군 조사하니
조계사 불상 연관성 높아

하지만 일제가 작성한 〈보현사재산대장〉에는 서산 · 사명 · 뇌묵 대사와 함께 일본 임제종의 승려 무상 대사 진영이 봉안돼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조선 왕실의 사액으로 만들어진 수충사에 일본 임제종 묘심사파 개조인 무상의 진영이 봉안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연구관은 "유리건판과 일제 문서는 식민지 상황에서 불교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일본불교 유입의 한 측면을 전해준다"고 밝혔다.

북한지역 불교 조각을 분석한 허형욱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은 유리건판의 활용 가치로 현존하지 않고 망실된 상에 대한 기록이자 도상 연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료라고 평가했다.

실제, 함경남도 안변의 석왕사는 태조 이성계가 퇴위 후 머물기도 했던 왕실 관련 사찰이다. 석왕사의 응진전에는 조선시대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여래좌상, 보살입상, 오백나한상이 봉안돼 있었으나 한국전쟁 당시 전소돼 유리건판으로만 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허 연구관은 "북한 불교 조각 연구의 어려움 중 하나는 실물 접근 제약과 한국전쟁 등으로 다수의 사찰과 문화재 소실됐다는 점"이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인 일제강점기 기록은 북한 소재 불교문화재의 파손 이전 모습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 자료"라고 평가했다.

또한 남한에는 없는 새로운 도상을 이해하는 데도 유리건판은 도움을 준다. 개성 용흥동 화장사의 '지공화상좌상'의 경우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승려 초상조각이다. 인도 왕자로 알려진 지공화상은 고려에 들어와 1326년 3월부터 1328년 9월까지 머물렀다.

허 연구원은 "이 유리건판의 조각상은 지공을 형상화한 초기작으로 연원을 알려준다"면서 "현재 해인사 희랑조사상, 부석사 의상대사상 정도밖에 전하지 않는 고승 조각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유대호 조계종 행정관이 도갑사 불상군 유리건판을 분석하며 조계사 목조불좌상 조성시기를 조선 초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지 '코로나&불교' 언론문화상 우수상 수상

조계종, 12월 4일 시상식… 대상엔 BBS '서릿달동안거'

코로나19 확산 이후 본지가 기획 보도했던 '코로나&불교' 연속 시리즈가 제28회 불교언론문화상 신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은 12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28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28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서 본지 김주일 편집국장(사진 오른쪽)이 상을 수상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본지는 '코로나&불교' 연속 시리즈 보도로 신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본지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 이후 불교계가 나아갈 방향을 분석하는 일련의 기획 기사와 코로나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소개하는 정보성 기사를 특집 기획 형태로 연속 보도했다.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 특집호에 게재된 '포스트코로나 & 불교'는 코로나 시대에서 불교의 상황을 진단하고, △사찰 · 재정 △수행 · 전법 △복지 · 마음케어 △기후변화 · 환경 분야서 불교가 어떻게 대응할 지를 살폈다.

9월 30일 본지 창간26주년 특집호에는 '코로나19 이후 불교계 변화'를 주제로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 100인(출가자 50인 · 재가자 50인)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특집 기획으로 제작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소장 등 전문가 3인과 함께 불교계 언론 최초로 언택트 대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를 통해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상황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방송 및 미디어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한 해였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주는 작품을 많이 접하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종단은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력에 부응 · 소통하고 지원해 많은 국민들이 내 삶의 주변에 불교가 있음을 일깨울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는 BBS의 '서릿날동안거'가 수상했다. 방송부문 TV최우수상에는 KBS다큐멘터리 '매혹의 실크로드' 4부작이, 라디오최우수상에는 BBS의 '코로나19 극복발원 BBS 8시간 특별 생방송 아름다운 보시'가, 우수상에는 BTN의 '그대에게 이르길 운성입니다'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문부문 최우수상에는 불교신문의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 특별기획 '무소유의 향기를 찾아서'가 이름을 올렸으며, 뉴미디어 부문 최우수상에는 유튜브 '불로잡생'과 한마음선원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마음꽃TV'가 수상했다.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포스트코로나 불교방향 진단

〈불교평론〉 84호서 특집 다뤄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불교의 접점을 조명한 계간지가 나왔다. 불교평론(주간 홍사성)은 통권 84호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불교'를 특집으로 다뤘다. 이번 특집 관련 논문으로는 △감염병 시대와 종교(이영석) △명상과 성찰의 시대가 왔다(인경 스님) △고립의 시대, 불교가 할 일(이종우) △코로나19 펜데믹의 교훈(곽병찬)이 게재됐다.

동방대학원대 교수 인경 스님은 '명상과 성찰의 시대가 왔다'는 발표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성찰을 위한 조건을 만들었을 뿐이지 구체적인 구도의 동기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번뇌로부터 내적인 거리두기를 의미할 때, 구도형 종교로서 불교는 명상과 성찰을 제공해 우리 공동체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불교평론 논단에는 △공덕수행으로서 보시와 그 현대적 의미(장성우)가, 나의 삶 나의 불교에는 △부처님 울타리 속에서 평생을 살다(송석구)가, 불교로 읽는 고전에는 △플라톤 '국가록' -오늘, 다시 묻는 민주주의 정체(윤세원)가 실려 눈길을 끌었다. 세계의 불교학자 소개에는 △리즈 데이비스-빨리경전 번역으로 초기불교 연구에 공헌(황순일) △다카쿠스 준지로-현대 불교학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다(정승석)'가, 불교 소설에는 △묘현 스님의 창작법(손홍규)이 담겼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금강 스님, 문화유산 유공자 대통령 표창

12월 8일 시상식… 미황사 대웅전 벽화 복원 등 공로



해남 미황사 대웅전 천불벽화와 응진당 나한벽화를 복원하는 등 20년 동안 미황사 불교문화유산 보존에 힘써 온 금강 스님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12월 8일 열리는 '2020년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시상식'에서 대통령상 표창을 수상한다.

스님은 미황사 주지로 2001년부터 20년 간 재직하면서 불교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통해 미황사를 전남 대표 사찰 중 하나로 일신시켰다.

실제 금강 스님은 '보물 제947호 미황사 대웅전'의 천불벽화와 반자의 문양들을 복원했으며, '보물 제1183호 미황사 응진당'의 나한벽화를 복원 · 보존하기도 했다. '보물 제1342호 미황사 괘불탱'을 복원 · 모사하고, '미황사 괘불재'를 매년 가을에 봉행해 해남 땅끝마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토록 했다.

신성민 기자

포교원 찬불가 율동영상 배포

"부처님이 좋아요""부처님을 사랑해" 등 온라인 법회 콘텐츠로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지홍)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포교활동에 진력하고 있는 전법중심도량 및 전국사찰과 불자들을 위해 신나는 찬불가 율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포교원은 11월 30일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율동영상을 공개하고, 율동참여 어린이 불자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제작된 영상은 온라인 플랫폼 활용 매뉴얼 제작과 함께 진행된 사업으로 사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진행됐다.

제작된 영상 콘텐츠는 종단 홈페이지 포교자료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유튜브 공식채널'과 '키즈붓다'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노덕현 기자

통도사 화엄산림 대법회 華嚴

입재 | 2020. 12. 15 |화| ~ 회향 | 2021. 01. 12 |화| 장소 | 설법전



동참금 영가 1위당 2만원 / 생축 10만원
문 의 기도접수처(화엄전) www.tongdosa.or.kr
Tel. 055)381-1288 Fax. 055)372-7010

• 법사스님 법문은 오전에만 이루어집니다. •

입재	월요일 ▶ 토요일	일요일	회향
불공 오전 10시 법문 오전 10시 50분	불공 오전 10시 법문 오전 11시	불공 오전 09시 30분 법문 오전 10시 20분	불공 오전 09시 법문 오전 10시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법성게 기도가 봉행됩니다. • 매주 일요일에 천도재 봉행합니다.

교통편
대중교통 부산 노포동 종합터미널 | 울산 시외버스터미널 | 동대구 성남고속터미널
승 용 차 경부고속도로 통도IC 통과 후 통도사로 진입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사명대사 '유정교첩' 표충사로 환지본처

밀양 표충사 11월 28일 주지 접견실서 기증식

사명대사 경상도 총섭 임명
가치인정 위해 소장가 기증
사명대사 호국정신 홍보위해
내년 춘계향사, 특별전 마련

성낙두 경남지사장 snakdu@hanmail.net

호국영웅 사명대사를 경상도 총섭에 임명하는 내용이 담긴 교첩(임명서)이 표충사에 전달됐다.

호국성지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는 11월 28일 주지 접견실에서 '사명당 유정 교첩' 기증식을 개최했다.

'사명당 유정 교첩'은 사명대사를 임진왜란 당시 경상도 총섭(승병을 통솔하는 역할)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담긴 임명서다. '사명당 유정 교첩'은 그동안 김상자(70 · 부산 연제구) 씨가 소장 하고 있었다. 김 씨는 고미술을 좋아한 선친이 간직하던 것을 물려받아 문화재로 가치를 인정받고 뜻 깊게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하게 됐다.

김 씨는 "섭섭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기쁘다"며 "부모님이 물려주셨지만 더 가치 있게 보관되고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었다. 이제야 제자리로 돌려보낸 심정이다. 후대에 많은 분들이 호국애민정신을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기증에 앞서 '사명당 유정 교첩'은 2013년 2월 진품명품 프로그램에서 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00만원에 해당하는 감정가를 받았다.

김 씨는 "당시 중요성을 몰라 가치를 알고 싶어 들고 나갔는데 표충사 교지를 들고 나와 비교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그 진가를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기증식에는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 기증자 김상자 씨를 비롯해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송천 스님, 김종민 경상남도 문화재전문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주지 진각 스님은 "교첩이 돌아온 것을 보니 마치 사명 스님이 돌아오신 느낌이 든다. 이번 기증식을 계기로 사명 스님의 애민정신과 호국의 얼이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국성지 밀양 표충사는 11월 28일 주지 접견실에서 '사명당 유정 교첩' 기증식을 개최했다.

김종민 경상남도문화재 전문위원은 "임명문서 가운데 사명당에 대한 내용은 국내에서 유일하다"며 유정 교첩의 가치를 언급했다. 이어 "전쟁 중이라 비변사가 직권으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사명당 유정 교첩'은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634호이다. 유정 교첩은 조선시대 대선(大選, 승과에 합격한 스님이 처음 받는 법계)인 사명당 송운(사명)대사를 경상도 총섭에 임명한다는 것으로, 선조 26년(1593) 8월에 비변사가 왕명을 받아 발급했다. 이 문서는 당시 긴박한 상황을 알려주는 객관적인 자료로 중요도가 높다. 〈조선왕조실록〉에도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선왕조실록〉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7일 계축 6번째 기사에는 비변사에서 선조에게 경상도 좌, 우도에 각각 총섭을 선출하여 일을 분장시킬 것을 건의하는 기록이 있다.

기록에는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비변사가 아뢰기를, '승장(僧將) 유정(惟政)이 지금 경상도에서 승군(僧軍)을 통솔하고 요새를 설치해 방비하는 등 모든 일을 조치하고 있는데, 지방이 넓고 또 한 총섭(總攝)으로는 승군을 징발함에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합니다. 좌, 우도에 각각 총섭을 선출하여 승군을 징발하는 일을 분장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라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사명당 유정 교첩'은 조선실록 기록보다 앞선 자료로 알려졌다.

한편, 표충사 호국 박물관은 '사명당 유정교첩' 기증을 기념하며 2021년 춘계향사 일정과 함께 특별전시를 마련, 공개할 예정이다.

통도사, 국내 최대 화엄산림법회 연다

구랍 15일~내년 1월12일까지 설법전서

국내 최대 화엄법회가 열린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경내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법문은 오전에만 진행되며 매주 토요일 법성게 기도, 매주 일요일 천도재가 함께 봉행될 예정이다.

입재식에서는 오전 10시 불공에 이어 방장 성파 스님의 입재 법문이 이어지고 이후 도암 스님(전 통도사 율원교수사), 반산 스님(전 쌍계사 강주), 법산 스님(전 동국대이사장), 보광 스님(전 동국대 총장), 용학 스님(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도일 스님(전 송광사 율원장), 덕문 스님(조계종 계단위원), 지안 스님(반야불교연구원장), 선지 스님(전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영산 스님(통도사 염불원장), 수불 스님(안국선원 선원장), 정우 스님(구룡사 회주), 심산 스님(흥법사 주지) 등이 법문한다. 마지막 날에는 방장 성파 스님이 회향 법문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통도사 화엄산림법회는 산자와 영가를 위한 법회로 유명하다. 조상 영가가 법문을 듣고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전국 각지 참가자들은 영가위패를 모신다.

동참금은 영가 1위당 2만원, 생축은 10만원이다. 접수는 통도사 화엄전으로 하면 된다. 055)381-1288



영축총림 통도사는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경내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지난 화엄산림법회 회향일에 대중들이 모인 모습.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우단종문회, 취봉장학회 창립… 인재불사 실천

12월 2일 장학회 창립법회 봉행

사단법인 대한불교 우담종문회(회장 도홍)는 12월 2일 불곡사 관음전에서 '우담종문 불곡사 취봉 장학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취봉장학회는 2000년 2월 창원 불곡사에서 입적한 회주 취봉 스님의 유훈을 잇기 위해 창립됐다. 이날 취봉장학회는 홍승혜(동국대), 최승준(봉곡중), 김지우(남양초) 등 3명의 학생에게 각 50만 원 총 150만 원을 전달했다.

창립법회에는 우담종문회 회장 도홍 스님, 취봉장학회 대표 묵암 스님 등 창원사암연합회 스님들과 사부대중 60여 명이 동참했다. 행사는 장학회 임원 소개 및 경과보고, 장학금 전달 순으로 이어졌다.

도홍 스님은 "취봉장학회 설립에 도움을 주신 여러 스님과 신도님들께 감사하다"며 "장학회 성금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장학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학회 대표 묵암 스님은 "취봉 스님의 상좌로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도 십시일반 금액을 모아서 도움을 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우담종문회는 12월2일 불곡사 관음전에서 '우담종문 불곡사 취봉 장학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소원정사. 어려운 이웃에게 통큰 보시행

11월 28일 연꽃향기자비나눔 개최

자비나눔을 통해 지역 불교계의 귀감이 되고 있는 광주 소원정사(주지 도계)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큰 선물을 전달했다. 소원정사에서 운영하는 연꽃향기자비나눔본부는 1월 28일 사찰 앞마당에서 제17회 연꽃향기자비나눔과 제11회 연꽃상 시상식을 봉행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연꽃향기자비나눔에는 전국에서 226명의 불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쌀 20kg 602가마(12,040kg)와 박종원 거사가 기부한 방한복 50벌(2000만원 상당) 전달식 가졌다.



행사에는 도계 스님, 동현 스님(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광주전남어린이청소년불교연합 대표)을 비롯해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이범식 신도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기부한 쌀은 서구청(4000kg), 남구청(4000kg), 빛고을나눔나무(3200kg), 보육원(1000kg), (사)동연(방한복)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 전달식에서 도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많은 불자들이 후원에 참여해주셨다. 올해 17년째 진행하는 연꽃향기자비나눔을 통해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전해지기를 기원한다"고 의미를 말했다.

봉사활동에 대한 시상식인 연꽃상에는 대상 정승연(정진인), 봉사상 김미경(보현화)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송광사, 출재가가 함께한 동안거 결제 눈길

11월 29일 100일 수행 함께 들어가

승보종찰 순천 송광사(주지 자공)가 동안거 결제를 맞아 참가대중들에게 "스스로를 반조하면서 바깥 외연에 흔들림 없이 안거를 하자"고 당부했다. 겨울 수행을 위해 모인 300여 사부대중은 지난 11월 29일 대웅전과 앞마당에서 경자년 동안거 결제를 봉행하고 100일 간의 수행일정에 들어갔다.

방장 현봉 스님은 결제에 참여한 대중에게 "불법(佛法)의 공부는 비대면(非對面)의 공부이며 밑천이 들지 않는 공부법이다. 왜 그런가? 이미 모든 것이 자기에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반조(返照)하면 텅 비어있으면서도 가득하고 가득하면서도 텅 비어 있는 오묘불가사의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결제에는 출가자를 비롯해 재가불자인 광주전남포교사단(단장 강윤구) 50여 명이 참여해 함께 동안거에 들어갔다.



강윤구 단장은 "포교사는 수행과 포교를 함께 하는 사람이다. 동안거를 맞아 수행을 통해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자 진행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광주전남포교사단은 "지난 하안거에 이어 2번째 결제에 참여했다. 동참자들은 안거대중방에서 참여를 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직장과 가정에서 사경, 염불, 108배 수행 등을 동안거 결제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포교사단 부산 · 개금복지관, '자비용품' 나눔

11월 27일 연탄 등 전달

추운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나눔이 진행됐다.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정분남)과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개금종합사회복지관(관장 류강렬)이 11월 27일 '자비의 동계용품 나누기 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

나눔을 위해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670명 포교사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았으며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100만 원을 기부해 동계 용품 및 연탄이 마련됐다. 기존 나눔 일정은 11월 28일에 예정됐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하루 앞당겨 27일 진행됐고 지역단 임원 및 개금복지관 직원만 참석해 조촐히 개최됐다.

정분남 단장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동계용품 나누기를 통하여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를 기원하고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불국정토 되길 발원한다"며 "오늘 행사에 동참해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류강렬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코로나19로 기부활동이 많이 위축된 시기이다. 저소득 세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눔과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한편,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11월 30일 코로나 19 소멸을 기원하는 법화경 기도를 입재했다. 릴레이 기도로 이어지며 매일 오후 6시 부산지역단 포교사단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기도일은 총 70일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흙으로 빚은 아라한의 온기를 만나다

허경혜 작가 나한전, 12월 7~13일 개최

흙으로 담아낸 아라한의 자비와 친숙함을 느껴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허경혜 작가의 '나한(羅漢)' 전시가 12월 7일~13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리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허경혜 작가는 흙으로 빚은 나한상을 1200도 고온에서 구워 옻칠로 마무리했다. 전시될 작품 나한은 일반적으로 사찰에서 볼 수 있는 나한과는 다르다. 흙처럼 편안하고 어머니처럼 따뜻하다. 누구나 편안하게 다가 갈 수 있는 친숙함이 특징이다.

허 작가는 "사찰에서 볼 수 있는 나한은 해학적이면서 약간은 딱딱한 느낌이다"며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은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한량없는 자비의 모습일 것 같아 담아보았다"고 설명했다.

'나한'은 아라한을 팔리어로 표기한 말이며 작품은 총 30여 점이 전시 될 예정이다.

허경혜 작가는 어머니의 사랑과 따뜻함을 주제로 35년 간 활동해 온 중견작가이다. 나한전은 2014년 서울 조계사 나무 갤러리 이후 2번째 특별전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현불 논단 |

붓다의 간병철학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코로나19 3차 대유행 시작돼
사회 구성원 피로감 증가 중

〈마하왁가〉 간병인 자질 명시
이득 얻으려는 마음 갖지 않고
환자에 佛法 전해 기쁘게 해야

붓다의 간병철학 핵심은 '자비'
코로나 극복, 상생 윤리관 바탕

이를 어쩌랴. 코로나19가 지구촌에 다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 500명 수준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다. 이 글이 지면에 실릴 때는 어떤 상황이 될까 가늠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19는 이제 개인적 차원의 질병을 넘어 사회 전체를 감염시키고 있다. 자영업자의 고통, 청년 실업, 소외계층의 확대 등 사회구조의 불평등 구조가 확대되고 있고 사회구성원의 피로감 증가와 집단 우울증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사회 구성원 개개인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면서, 동시에 코로나로 휘청거리는 공동체를 치유하는 '간병인'이 되어야 할 위치에 서 있다.

불교의 근본 뿌리인 빠알리 경전에 붓다의 간병 철학이 있다. 〈마하왁가 8편 26:8〉에 훌륭한 간병인의 다섯 가지 자질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약을 구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환자에게 무엇이 이로운지 무엇이 해로운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환자에게 이로운 것은 가져오고 해로운 것은 버린다.

셋째, 이득을 얻으려는 생각없이 다정한 마음을 가지고 간호하여야 한다. 넷째, 똥 · 오줌 · 땀 · 구토물 등을 더럽다고 생각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환자에게 때때로 가르침을 설하여 기쁘게 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을 보면 붓다가 매우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간병의 자질을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더구나 간병인의 첫째 자질로 약을 구할 능력을 든 것은 참으로 놀랍다. 근래 코로나 백신약과 치료약이 곧 나온다니 빛이 보이기도 한다. 붓다가 제시한 간병인의 자질은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붓다는 마음의 치유까지도 간병에 두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도 병이 깊어 간병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제 간병의 대상이 '개인'에서 '사회'로 확대로 되고 있다. 붓다의 간병철학을 사회 공동체에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많은 화두를 던진다. 사회 치유를 위한 약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로운 것은 어떻게 얻고 해로운 것은 어떻게 제거하는가? 치유의 자비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붓다의 간병철학의 핵심은 한 마디로 자비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리라. 붓다의 연기법과 무아사상에서 자비사상이 자연스럽게 우러난다. 자비는 우리 자신의 삶에 느끼는 사랑을 다른 형태의 모든 존재에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상생'이다. 상생의 형태나 방식은 다양할지라도 상생적 삶의 양식은 공동체의 근원이다. 공동체의 특성으로 호혜성이나 상호부조를 제일 중요한 요소로 거론하는 것도 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여기에 자비 공동체 실현의 첫 과제로 등장하는 것이 상생적 윤리관의 정립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근원적인 '방역 체계'는 상생적 윤리관에 바탕을 두는 것일 것이다. 붓다는 간병철학의 마지막 강조점으로 "환자에게 때때로 가르침을 전하여 기쁘게 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바로 붓다의 지혜를 알리고 자비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리라. 글을 마무리하면서 병든 비구의 몸을 씻기시는 붓다의 모습이 선하다. 빠알리 경전 〈마하왁가 8편 26:1-4〉의 내용을 축약해 본다.

"비구야, 너는 무슨 병에 걸렸느냐?" "부처님, 저는 이질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너를 간호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부처님"

"아난다, 가서 물을 가져 오너라. 이 비구를 목욕시켜야겠구나." "예, 부처님."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마지막 달력 한 장

어느덧 올해도 달력 한 장만을 남겨놓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없이 1년을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게 한 해를 보내게 되는 것 같다. 1.5단계에서 2단계로, 그리고 다시 2.5단계로 위험수위가 격상되면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이별의 고통은 이산가족의 상황을 방불케 한다.

일산병원 호스피스병동에 있다가 지금 현재 다른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겨 임종의 여정에 다다른 동생 때문에 가슴 졸이는 한 거사가 법당을 찾았다. 그 곳 병원은 일산병원보다 출입의 제한이 훨씬 엄격하여 가족들이 전혀 병문안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재 어머님이 동생을 간병하고 있는데 어머니를 통해 전화로 동생의 상태와 어머니의 안부를 듣고 있다고 하였다.

"거사님, 그래 얼마나 힘드세요"하고 위로말씀을 드리자 거사는 눈에 눈물이 핑 돌더니 급기야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군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동생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도 답답하지만, 연로하신 어머니는 오도가도 못하고 병원에 붙잡혀 계시니 죽어가는 아들 보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제가 미칠 것만 같습니다." 거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의 울부짖음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림 · 최주현

뭐라고 위로를 해야할지 나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를 나오시게 하시면 어떨까요. 아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거사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다.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계시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사의 마음이 오죽 답답할까 싶었다.

일산병원에서 잠시 뵈었던 노보살의 모습이 떠올랐다. 처음엔 불자라는 것도 말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내가 다가가자 수줍게 불자임을 밝혔던 분이셨다. 아들이 암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다고 말하였다. 아들의 병이 자신의 업이고 죄인 것만 같다고 하였다. 친척에게도 동네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숨기고만 싶다고 말하는 보살의 아픔을 어루만져줄 시간도 없이 환자는 다음날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가게 되었다.

"동생이 가고 나면 스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거사는 수그리고 있던 고개를 들어 인사를 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네, 저도 마지막 배웅의 길에는 꼭 함께하며 동생분도 어머님도 위로해 드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서는 거사의 뒷모습에 올해 12월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앙상한 스프링에 매달려 있는 모양이 마지막 잎새와 같이 가냘프게 흔들리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社 說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확대에 부쳐

문화재 보유 사찰의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는 소식이다.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는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기준을 새롭게 조정 ·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다양한 계층에서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총 18개 분류의 국가유공자와 부인으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보호자 1인 포함), 다자녀 가구 부모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도 입장료 면제가 이뤄진다.

문화재구역입장료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징수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민족 문화유산인 불교 성보문화재를 보존 ·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국립공원 내에 있는 국보 41점과 보물 160점은 모두 사찰 소유로 이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재화도 무시를 못할 수준이다.

애초 국립 · 도립공원의 경우 국가가 소유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지정 · 운영한 것으로 시작됐다. 그럼에도 조계종에서 면제 대상을 확대해 다양한 계층에 무료로 개방하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불교를 알리고 우리 문화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겠다는 의지다. 이는 분명 박수를 보낼 일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도 이 같은 불교계의 노력에 맞는 예산 지원을 바란다. 2018년 기준 관리 예산만 600억 원인 서울 4대궁 · 종묘와 세계문화유산과 국보 · 보물을 압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불교계와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장애인포교, 새 전략 필요하다

최근 롯데마트가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법적으로 '장애인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내견은 곧 눈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 · 인식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슬프지만 불교계는 롯데마트보다 더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다. 장애인단체를 이끄는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언급하며 "사찰에서 안내견이 쫓겨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장애인에 대한 인식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것.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불자회가 창립하고 활동을 시작한지도 30년이 훌쩍 지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식은 저조하고 장애인 포교는 제자리걸음이다. 장애인단체들의 활동도 쇠퇴 수순을 밟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식부족, 그리고 무관심이다.

일반 불자들이 감소하듯 장애인불자들도 감소하고 있다. 속도는 훨씬 빠르다. 젊은 장애인 수가 적어지는 가운데, 기독교계는 적극적인 선교전략을 펼치고 있다. 전국 맹학교 13곳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계 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서부터 알게모르게 기독교를 접한 장애인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자연히 인근 교회 및 성당에서 운영하는 '농아부'에서 활동한다. 청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들의 사정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새로운 포교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기존 장애인불자들의 신행지원을 넘어, 새로운 장애불자들을 만나기 위한 범불교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그 시작점이 장애인을 향한 관심과 이해임은 당연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2~12/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6	한권으로 일목 요연하게 보는 불교의 이해	도후스님	운주사
2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7	네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대념처경과 그 주석서)	각묵스님	초기불전연구원
3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8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일아스님	민족사
4	요가디피카 (아헹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9	적명을 말하다 (선사들이 들려주는 수좌 적명의 삶)	유철주	사유수
5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스님/정원규	불광출판사	10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

책세상

말로 못한 '사랑' 글로 적은 '사랑'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라도 늦지 않다

김재진 지음/김영사 펴냄

1만4천8백원

'사랑'을 관통하는 44편의 에세이

깊은 성찰이 빚은 따뜻한 이야기

"삶의 의미는 스스로 만드는 것"

40년 동안 시집 등 30여 권 출간



저자 김재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꽃이 지고 나면 다음 해에 또 피지만, 사람은 가고 나면 돌아올 줄 모른다. 어머니께 하지 못한 한마디는 오래오래 내 가슴속에 후회로 남아 있다. 〈중략〉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언제라도 사랑한다는 말은 늦지가 않다."

그때 했어야 할, 그때 하지 못해 가슴속에 후회로 남아있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때 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은 이제 말이 될 수 없어 안타깝다. 들어줄 사람이 없는 그 말은 이제 글이 되어 남는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머니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연으로 확장된다.

그렇게 책은 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를 모은 것이다. "언제라도 늦지 않다"며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토해낸다. 김재진 시인의 산문집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라도 늦지 않다〉는 '사랑'을 관통하고 '사랑'으로 귀결되는 44편의 에세이를 담고 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할까? 참 쉬운 말인데도 입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사랑'이라는 말은 쉽지 않은 말이다. 쉽게 입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쉽게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말이 되기까지가 쉽지 않은 것이다. 어머니와 아들의 세월이 '사랑'이라는 말로 피기까지, 나와 너의 만남이 그렇게 되기까지, 길냥이와의 만남이 그렇게 되기까지, 모두 쉽지 않은 것이다.

저자도 그랬다. 평생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럴 것이다. '사랑'이라는 말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다. 감정표현에 서툴다는 이유가 그 이유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라도 늦지 않다는 게 이 책의 이유다.

저자는 오랜 투병 끝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끝내 하지 못한 그 한마디가 오래오래 가슴속에 후회로 남았다. 책은 저자가 어머니에게 끝내 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을 토해내며 시작됐지만 그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되어 흐른다. 작은 생명과 사물에 대한 애정부터 존재 자체의 소중함, 부모와 자식 · 남녀 간의 사랑, 우연한 만남이 선물한 특별한 순간들과 범우주적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까지. 저자 특유의 섬세한 관찰력과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이 빚어낸 문장들은 우리 마음에 따스한 숨결을 불어넣는다.

저자는 여러 편의 소설과 시가 당선되며 등단한 뒤 40여 년간 글을 썼다. 젊은 시절, 방송사 피디로 일했고, 오래 병석에 누워 고독한 시간을 보내던 어머니가 벽에 입을 그려달라고 청한 것을 계기로 그림을 시작해 세 번의 전시회를 열었다. 이미 30여 권이 넘는 책을 출간한 그이지만, 이 책은 좀 더 특별하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미처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온몸으로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책에는 사랑과 인생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집 없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챙겨주는 애틋한 마음에서, 빈집의 열려 있는 빗장을 단단히 채워주고 가는 낯선 이의 손길에서, 이방인의 행복한 여행을 위해 잠도 못 자고 길을 안내하던 부탄 소녀의 미소에서, 계절마다 형형색색 꽃과 잎을 피우며 다채로운 목소리로 시인처럼 노래하는 자연의 생명력에서, 독자는 '김재진의 사랑'을 만난다.

"성가시게 여기던 길냥이에게 애틋한 마음이 생긴 것은 순전히 지인 덕분이다. 유난히 고양이를 사랑하는 그로 인해 집 없는 것에 대해 연민이 생긴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누군가를 애정할 경우엔 그 누군가가 애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눈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다. 생명 있는 것뿐만이 아니다. 사물도 마찬가지이다." - 〈애정의 눈 하나〉 중에서.

저자는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일깨워준다. 바로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없는 사람은 성장할 수도,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우리는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며 서로를 보듬는다.

책은 많은 일화를 통해 '삶의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준다. 지친 세상에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사랑을 매개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의 눈과 귀, 마음으로 담아낸 삶에 대한 다정한 위로와 위안의 언어는 책 전체를 관통하며 따뜻한 메시지를 전한다. 정여울 작가는 "김재진 시인의 글은 한 사람을 위해 바쳐진 협소한 사랑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무조건적인 환대와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했다.

저자 김재진은 〈영남일보〉와 〈조선일보〉 신춘문예, 〈작가세계〉 신인상에 시와 단편소설, 중편소설이 당선되며 40여 년 동안 글을 썼다. 글을 쓰면서도 문단과는 멀리 있고, 세속에 살면서도 세속과는 거리를 둔 은둔자로서의 삶을 추구해온 그는 우연히 듣게 된 첼로 소리에 끌려 음대에 입학하기도 했다. 방송사 피디로 일하며 방송 대상 작품상을 받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던 중 돌연 직장을 떠나 바람처럼 떠돌며 인생의 신산(辛酸)을 겪었고, 어머니의 청을 계기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전시회를 열고, 첫 전시회의 그림이 솔드아웃 되는 이변을 낳기도 했다. 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그는 시집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할 때〉 〈산다고 애쓰는 사람에게〉 장편소설 〈하늘로 가는 강〉 어른을 위한 동화 〈잠깐의 생〉 〈나무가 꾸는 꿈〉 산문집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등을 펴냈다. 현재 파주 교하에 있는 작업실 '민들레 행성'에서 그림 그리기와 글쓰기에 전념하고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14쪽 - "단 한 줄의 시를 쓰지 않았다 해도 시인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천 편의 시를 썼다 해도 시인 아닌 사람이 있다. 시인이 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한 방법이다. 삶을 사랑하고, 삶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며, 삶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시인이다."

이쯤 되면 라즈니쉬가 말하는 시인이 어떤 존재를 일컫는지 짐작이 간다. 그는 문자로 된 시를 쓰는 차원을 넘어 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시인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41쪽 - 꽃잎보다 가벼운 눈도 쌓이면 무거워지는 법이다. 무게 없는 생각도 쌓아두면 무거워지는 건 마찬가지이다. 눈이건 생각이건 털어내야 젖지 않는다. 삶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마음에 살얼음이 끼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 중심을 가지되 가볍게 살아야 한다.

69쪽 - 꽃은 지고 나면 다음 해에 또 피지만, 사람은 가고 나면 돌아올 줄 모른다. 어머니께 하지 못한 한마디는 오래오래 내 가슴속에 후회로 남아 있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하지 못한 시간을 돌아보며 아무도 없는 허공 위로 "사랑해요" 하고 불러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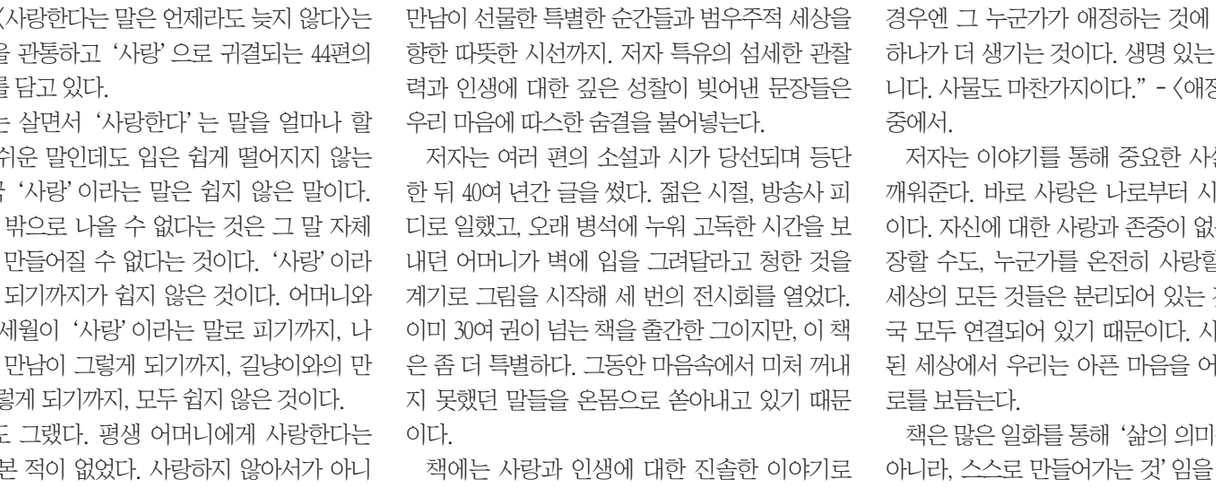
사람이 떠난 자리엔 후회만 남는 법, 아끼지 않아도 되는 말을 아꼈다는 자책으로 나는 어둠 속에 탄식 하나 토해놓는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언제라도 사랑한다는 말은 늦지가 않다.

72쪽 - 이상한 일이었다. 마치 말이 통하는 누군가가 앞에 있는 것처럼 나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하듯 고양이에게 말을 건넸다.

"삶은 모두 불꽃을 가지고 있다." 내 앞에 앉아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나로부터 3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웅크린 채 앉아 있는 길냥이는 묶이지 않았지만 묶인 것같이 부자유스러운 자세였다. 입고 있는 옷은 털이 빠지고 때가 묻어 병든 모습이 역력했다.

밝은사람들 총서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권석만 외/23,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종 외/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20,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정준영 외/18,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오강남 외/18,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정준영 외/18,000원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20,000원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미산 외/20,000원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구병수 외/20,000원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권석만 외/22,000원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 김성구 외/22,000원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 권석만 외/20,000원



번뇌,

끊어야 하나 보듬어야 하나

YouTube 유튜브 동영상 강연!

검색: 밝은사람들연구소

기간: 2020년 12월 한 달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시청 가능!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는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책은 초기불교, 선불교, 대승불교, 서양철학, 심리학 분야에서 바라본 번뇌의 의미와 본질, 구조, 그리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성찰이다.

이필원 · 김재권 · 오용석 · 박찬국 · 이유경 집필

신국판양장/368쪽/2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日, 역병신 물리친 간산대사 재조명

진다이지, 내년 도쿄국립박물관서 특별전시

박영빈 객원기자

천여년전 역병이 돌던 시대에 역병을 몰아내기 위해 스스로 악귀로 나툰 스님이 있다. 일본 천태종의 18대 종정으로 교와 선에 통달했던 간산대사 료겐(元三大師 良源. 912-985)이다. 최근 코로나가 다시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일본에선 간산대사에 대한 신앙이 재조명되고 있다. 또한 사찰에서 문외불출이었던 간산대사상이 205년 만에 외부에서 공개되는 등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아사히신문' 은 간산대사에 대한 현대의 신앙을 특별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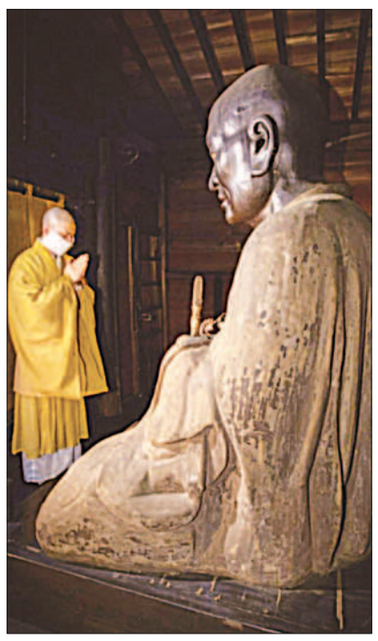
간산대사와 역병의 이야기는 대사의 전기에 실려 전한다. 어느 시기 일본에 역병이 돌아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 나갔다. 이윽고 역병을 옮기던 역병신이 간산대사 앞에 나타나 대사의 몸에 침입했다. 오한과 고열을 느낀 대사는 법력으로 역병신을 쫓아냈으나 곧 중생들을 병고에서 구해야겠다는 마음을 내었다.

대사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 큰 거울을 걸어두고 이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내라고 명했다. 곧바로 깊은 선정에 든 대사의 모습이 거울에 비췄으나, 그 모습은 머리에 긴 뿔이 돋고 팔다리가 길게 뻗고 비쩍 마른 악귀의 모습이었다.

대사는 제자들이 그려낸 그림을 모본으로 목판으로 찍어내 집집마다 문에 붙

1000여년전 중생구제 위해
악귀로 변신해 역병 물리쳐
코로나 시국 속 재조명되며
205년만에 외부에 공개예정
쿄쿠센지, 초상 2만장 배포

이도록 명했다. 그러자 역병이 곧 소멸하고, 다른 액운과 병고들도 모두 사라졌다고 한다. 간산대사에 대한 신앙은 일본전역에 퍼져 중세에는 간산대사의 초상을 붙이지 않은 집이 없을 정도였다고 전한다.



205년만에 산문 밖에서 공개될 예정인 간산대사상.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최근 코로나19가 다시금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에선 간산대사에 대한 신앙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야마가타(山形)현에 소재한 신사인 쿠마노타이샤(熊野大社)에선 지난해 말 중세에 사용하던 간산대사의 초상 목판이 발견돼 신사에서 복각해 다시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일부 불자들은 올해 초 코로나19가 확산된 것과 맞물려 "다가올 병고를 막고자 대사님이 나투신 것"이라며 신비로워했다.

간산대사의 탄생지에 건립된 쿄쿠센지(玉泉寺)도 코로나19 시국을 극복하고자 지난 3월 중세의 초상을 복각했다. 전국에서 주문이 폭주하여 약 2만장 이상이 배포됐다.

간산대사에 대한 신앙이 고조되는 가운데, 205년 만에 산문 밖을 나서는 간산대사상도 있다. 도쿄에 소재한 고찰 진다이지(深大寺)에 봉안된 간산대사상은 높이 2m의 거상으로 일본최대의 승상으로 꼽힌다. 50년에 한 번 대중에게 공개되며, 지난 3월 특별공개를 앞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지됐다. 그러나 진다이지 측은 내년 가을 도쿄국립박물관에서 특별공개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간산대사상이 산문 밖에서 공개되는 것은 205년 만이다.

진다이지는 "코로나 시국을 떨쳐내고자 대사상의 공개를 원하는 문이 많은 것으로 안다. 신심으로, 또 진귀한 문화재를 감상하려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오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日 무인사찰서 도난사건 증가 우려

불상 훔친 범인 체포 해
문화재급 불상들도 환수



무사히 환수된 불상들, 모두 문화재급으로 밝혀졌다. 사진출처=마이니치 신문

일본에서 최근 성보 도난 사건이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와 출가자 감소로 상주하는 사람이 없는 빈 사찰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보시금이나 불구는 물론 본존불이나 범종과 같은 성보들마저 도난을 당해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반면 도난 된 불상들을 기적적으로 되찾는 기쁜 소식도 들려온다. 11월 17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은 도난당한 문화재급 불상들을 되찾은 소식을 보도했다.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경찰은 지난 17일 무인사찰에서 불상을 훔친 56세의 범인을 체포, 도난당한 불상 7구를 무사히 환수했다고 밝혔다. 도난당한 불상들은 여래상 3구, 보살상 3구, 명왕상 1구로 모두 문화재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은 지난 9월 하순부터 사이타마 현과 이웃한 토치기(栃木)현 등 4곳의 사찰에서 불상을 훔친 것으로 진술했다. 이중 대부분이 무인사찰로 방범이 허술 했으며, 특히 사찰의 구조상 CCTV등의 설치가 어려운 곳을 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범인이 체포되었단 소식에 "사람들의 기원을 들어주던 부처님을 훔쳤으니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분개했다.

범인은 현재 거주지 불명의 무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불상이 고미술로 고가에 거래됨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은 훔친 불상들 중 지금까지 6구를 고미술상이나 고물상등에 매각했고, 최근 훔친 불상을 매각하기 위해 관련 상점들을 돌던 중 덜미가 잡혔다. 범인의 진술에 따라 지금까지 매각됐던 6구의 불상도 모두 무사 회수됐다.

범인은 고액에 매각하기 위해 문화재급의 불상, 혹은 본존불급의 불상만을 골라 훔친 것으로 진술했다. 파손된 불상은 값을 받기 어렵기에 그대로 버려두고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범인은 "이렇게 빨리 잡힐 줄은 몰랐다. 천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문화청의 통계에 따르면 사이타마현에는 약 2200개소의 사찰이 있으며 이중 무인사찰도 상당수 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측은 무인사찰에 대해 단순 잠금장치 외에 방범부저나 야간조명, 관리인 지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서 훼불로 몸살 앓는 베트남 불교계

불상 훼손 사건만 6건
경찰, 혐오범죄로 간주

최근 미국 오렌지카운티주(州) 인근 지역에서 훼불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한달 간 이 지역에서만 6차례 발생했다. 지역 경찰은 이를 중대한 혐오범죄로 간주, 수사에 착수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The Los Angeles Times) 등 외신이 11월 28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오렌지카운티주 산타 아나시(市)에 위치한 흐엉 틱(Huong Tich) 사찰의 불상 15개가 훼손됐다. 신원미상의 용의자들은 이 불상들에 검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예수' 등의 글자를 적고 달아났다.

유년 시절부터 이 사찰에 다녔다는 타이 비엣 판(Thai Viet Phan) 산타아나 시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는 단순히 사원 무단침입과 기물파손을 넘어선 사건"이라며 "베트남계 미국인 불교 공동체를 겨냥한 증오 범죄이며 우리는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 최초의 베트남계 미국인 시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미국 오렌지카운티주(州) 인근 지역에서 훼불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출처=LA타임즈

마찬가지로 훼불 피해를 입은 오렌지카운티주 가든 그로브(Garden Grove) 시의 다이에드레 응 우옌(Diedre Nguyen) 시의원도 해당 기자회견에서 "증오범죄가 지역사회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칠지 매우 우려가 된다"며 "평화와 숭배의 장소에서 수천 달러 규모의 훼불 사건이 자꾸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건이 계속 보도되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까봐 두렵다"며 "하지만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신원미상의 여성 2명으로 좁히고 수배 중이다.

지역 경찰에 따르면, 두 여성은 지난 23일 Huong Tich 사원에 무단침입한 뒤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불상을 훼손하다가 CCTV에 포착됐다. 두 여성은 마스크를 쓰고 어두운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다. 한 여성은 파란색 비니를, 또 다른 여성은 검은색 비니를 착용했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5건의 불상 훼손 사건 용의자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두 여성을 수배 중"이라며 "최근 오렌지카운티주 내 산타아나시에서 2건, 가든그로브시에서 3건,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시에서 1건의 훼불 사건이 발생했다. 모두 검정색 스프레이 페인트가 범행에 이용됐다"고 설명했다.

웨스틴민스터시에서 피해를 입은 듀 응우(Dieu Ngu) 사원 관계자는 "재산상의 피해는 매우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며 "이는 증오범죄로 우리 공동체의 종교 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한편 오렌티카운티주가 최근 발표한 2019 증오범죄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주에서 증오범죄 비율이 24%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5년 연속 증가 추세다.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반감이 계속되면서 증오범죄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정현 객원기자

태국 승려, 야생 코끼리 습격 받아 사망

탁발 나섰다가 봉변

태국에서 한 승려가 지난 24일(현지시간) 탁발을 가던 중 야생 코끼리에 밟혀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CTN뉴스 등 외신은 지난 25일(현지시간) "국립공원 관계자들이 다리가 부러지고 두개골이 함몰된 승려의 시체를 발견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스님은 프라 솜번 번왓(Phra Sombun Bunwat · 64)으로 태국 북동부 야소톤(Yasothon)주(州)에 위치한 왓 수망칼라람(Wat Sumangkhlaram) 사원에 주석 중이다.

스님은 국립공원으로부터 약 60m 떨어진 외진 풀밭에서 발견됐다. 스님은 심각한 안면 훼손과 다리 골절, 두개골 함몰 상태였다고 전해진다.

지역 경찰은 "스님이 탁발을 위해 사원에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야생 코끼리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다"며 "스님의 시신은 부검을 위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라고 전했다.



태국 국립공원 인근에서 탁발을 가던 스님이 야생코끼리에 밟혀 숨졌다. 사진출처=CTN뉴스

한편 태국에서는 야생 코끼리에게 습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태국 동부에 위치한 촌부리(Chon Buri)주(州)에서 중년 여성이 고무나무 채집 중 야생 코끼리에 밟혀 숨졌다.

박정현 객원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생혈액 촬영 — 연전현상(사용전) /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 사용전 / 사용후



검버섯 — 사용전 / 제거 현상 — 사용6개월 후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다리 쥐나는 것, 목, 어깨, 허리통증, 무릎관절 등은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자연치유되어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가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 : 120g 1개 40,000원
BLOOD MATE® 순비누 : 120g 1개 20,000원
ORAL MATE® 치 약 : 120g 1개 21,000원

◈ 혈액건강 ◈
◈ 두뇌건강 ◈
◈ 세포건강 ◈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사당패 · 굿중패… 조선불교 고난사



이상근의
聖寶流轉

㉓ 조선불교 분투기



법주사 선희궁원당 전경. 솟을삼문 형식으로 유교 사상이 체현됐다. 사도세자의 어머니인 영빈 이씨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해 법주사에 원당을 세운 연유로 솟을삼문이 섰다. 지금은 조사각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선의 불교 탄압

이전 연재에서 다뤘지만 고려시대 승려의 숫자는 전체 인구의 약 1/3이었다. 정확한 인구 통계가 없지만 고려 시대 인구를 200만 명에서 500만 명 사이로 추정한다면 70만 명이 하한선이고 상한선으로 잡으면 무려 150만 명이다.

물론 그 숫자의 8할은 공부하는 수행승이 아니라 비승비속의 삶을 살아가던 수원승도(隨院僧徒)라는 존재였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행승' 이었던 '하급승려' 였던 숭유억불을 내세운 조선의 건국으로 궁지에 몰리기는 매한가지였다.

조선의 불교 탄압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이었다. △사찰과 승려 수 제한 △사찰의 경제 기반이었던 토지와 노비의 몰수 △승려 신분 하락과 망신주기다.

첫째, 사찰과 승려 숫자의 제한이다. 실록에는 '8000 명으로 제한' 해야 한다는 상소가 계속 올라왔지만 한꺼번에 줄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학자들은 대략 조선 건국 후부터 조선 전기까지 10만 명, 조선 후기 5만 명, 일제 강점기 8000 명 정도로 승려 숫자를 추정하고 있다. 고려시대 승려의 1할도 안 되는 수치다. '감원' 1순위는 젊은 승려였다. 태종 2년 6월 18일자 예조에서 올린 상소문의 결론 부분을 보자.

"그리고 승도(僧徒)들로서 나이가 젊은 사람은 머리를 기르게 하여 백성으로 삼고, 승니(僧尼)로서 나이가 젊은 사람은 남편이 죽어서 수신(守信)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또한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머리를 기르고 시집가도록 허용하소서."

사실 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노동력이 될 수 있고 '세금' 이 될 수 있는 자를 먼저 환속시키는 게 분명 유리했을 것이다.

사찰 수 제한도 있었다. 태종 6년에는 종파별로 나눠 242개의 사찰만을 '공식적' 으로 인정했다. 세종대에 이르면 종파를 아예 선종과 교종으로 통합하고 각각 18개, 합하여 36개의 사찰만 '공식적' 으로 인정했다.

둘째, 사찰의 경제 기반인 토지와 노비의 몰수였다. 태종 때 몰수한 토지와 노비만 각각 1만 7200결, 8600명이었다.

결이라는 단위는 소출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 연유로 시대와 농사 기법에 따라 들쑥날쑥 하는 단위다. 좀 보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조선 중기 연암 박지원이 측정하던 것을 기준으로 하면 사방 100보, 대략 22,500㎡가 한 결에 해당한다. 평수로는 대략 6,800평이다. 이걸 1만7,200결로 곱하면 387,000,000㎡다. 감이 잘 안 올지도 모르겠다. 대략 현재 서울 전체 면적의 두 배 크기다.

세 번째, 신분 하락과 홀대하기다. 승려는 노비, 기생, 백정, 광대, 공장, 무당, 상여꾼과 함께 팔천(八賤)이 되었다.(승려를 팔천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실록에 기록이 없다며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조선종독부 통감에 승려가 팔천으로 분류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전부터 승려가 천민으로 분류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당연히 도성출입은 당연히 금지되었다. 여기에 사적인 폭력도 부지기수였다. 유생들이 절에 가서 기물을 파괴하고 성보를 훔쳐오는 일이 빈번해 왕까지 나서서 '자제하라' 고 말렸을 정도다. 승려가 유람을 떠나는 선비들의 경마잡이가 되는 일도 흔했다.

조선 사찰이 살아가는 방법

조선 시대 '공식적' 으로 승려로 살아가는 방법은 도첩을 받는 길뿐이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시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도첩을 받을 수 있었던 숫자는 대략 3년에 60명 안팎이었다. 물론 예외가 있었다. 전쟁에 동원되거나 성을 축조할 때 승려들을 동원했고 도첩으로 유인했다.

집단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사찰이 통째로 왕실의 후원을 받는 방법이었다. 왕이나 왕비의 명복을 빌어주고 왕실원찰이 되었다. 사찰에 따라 홍살문이나(용주사, 동학사 등) 솟을삼문이(법주사, 통도사 등)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모두 '유교식' 건물이지만 왕실과의 관계 때문에 절집에 자리 잡았다. 여하튼 양반들도 이런 절에서는 함부로 물건을 부수거나 훔치지 못했다. 게다가 이런 절들은 공명첩(空名帖)도 대량으로 얻을 수 있었다. 공명첩을 받은 승려와 사찰은 군역(軍役)과 세금을 면제받았다.

> **사찰, 승려 제한 · 신분하락 등**
> **儒 숭상 조선, 불교 제재 강화**
> **사찰 재정 피폐… 자구책 고심**
> **왕 · 왕비 명복기원 원찰로 변화**
> **사당패 등 연희집단 출현하기도**

특이한 경우지만 해외 망명 시도도 있었다. 1419년(세종1)에 승려 30명이 압록강을 넘어 명나라로 도망친다. 세종은 '절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고 (명나라) 황제는 불교를 숭상하니 당연히 도망치고 싶었을 것' 이라고 혀를 끌끌 찼다.

이밖에 예전부터 이어져온 사찰계를 조직하는 등 부조 활동도 있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했다. 자연스레 살림살이가 줄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걸립패, 사당패의 등장

사찰 경제가 피폐해지는 건 물론 국가적인 위기나 기근 등이 닥치자 사찰 재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시작된다. 걸립패, 굿중패, 사당패 등 연희를 앞세운 집단의 출현이다.

걸립패는 무리를 지어 각처로 돌아다니면서 목탁이나 꽹과리를 치며 축복하는 염불을 하고, 돈이나 쌀을 시주를 받았던 집단이다. 굿중패라고도 하는데 사전에는 이들이 승려였다고 명토박아 말하고 있다.

신윤복의 '노상탁발' 이라는 그림을 보자. 조선시대는 승려들의 복장이 한복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의식이 진행될 때만 가사를 걸쳤다. 그러니 복식으로는 그 사람이 승려였는지 아니었는지 구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삭발은 다르다. 옛 그림에서 승려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삭발이 유효하다. 그런데 신윤복의 노상탁발에서 머리를 깎고 있는 이는 법고를 치고 있는 한 사람뿐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노상탁발' 속 주인공들은 대부분 고려 시대 수원승도처럼 비승비속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들은 반드시 사찰의 신표를 제시하고 터굿, 성주굿, 조왕굿, 샘굿 등을 해주면서 수입을 얻었다.

호구(餬口, 끼니를 이어감)를 위한 일이니 이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사당패로까지 내려오면 멀리 나가도 한참 멀리 나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사당패는 모갑(某甲)이라고 해서 무리를 이끄는 대장만 남자였고 주요 구성원은 여자였다. 모갑 외에 남자들도 있었지만 모두 사당에 붙어먹는 기생자들이었다. 이들이 내세운 건 수입으로 불사(佛事)를 돕는다는 것이었다. 이들 역시 걸립패와 마찬가지로 사찰의 신표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이 없으면 마을 수령들은 그들이 연희를 할 수 있는 마당을 깔아주지 않았다. 이들의 주 수입원은 연희 때 받는 돈이 아니었다. 해웃값(解衣債)이라고 해서 육체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이 주 수입원이었다. 사회문제가 되자 19세기에는 아예 여성이 낀 사당패를 단속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이번에는 남사당패가 등장한다. 사당패와는 달리 남자들로만 구성된 남사당패는 역시 사찰의 신표를 지니고 다니며 불사를 이유로 놀이를 벌였다. 그런데 특이한 건 일정한 보수도 없이 숙식만 제공받으면 마을의 큰 마당에서 밤을 새워 가며 놀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수입원은 따로 있었다. 계간(鷄姦)이라고 해서 남자가 남자의 잠자리를 상대하며 수입을 얻었다.

이들이 실제 사찰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다. 안성 청룡사나 남해 화방사 등에는 이들이 흔적이 남아 있다. 실제 시주를 했던 기록도 있다. 의왕 청계사 동종 등에 그 명문이 남아 있다. 또 남양주 흥국사나 통도사의 감로도에는 이들의 존재를 그림으로 남겨놓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은 사찰에 의탁하기보다는 독립해 사는 경우가 많았다. 전국 곳곳에 '불당골' 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절에 살던 사람들이 '유민' 이 되어 떠돌며 호구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물론 사당패나 남사당패의 연희 전통 그리고 민중적 요소를 강조하는 사람이나 글들이 많다. 그것은 그것대로의 평가겠지만 불교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어려웠던 시기 결국 나락으로 추락했던 모습의 일면일 뿐이다.

〈불광출판사 편집주간〉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IBS, 뇌과학자)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 강 일** : 2021년 1월 26일(화)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 (02)741-0495~6

출가 스피치, 오감 활용서 출발



이현정의
불교와 스피치

⑧ 출가 스피치 방법



그림 · 박구원

출가수행자는 설법을 통해 부처님 말씀과 불법을 사부대중에게 전달한다. 편의상 출가수행자의 불교스피치를 설법스피치로 칭할 때, 설법스피치는 특히 일반적인 스피치의 원리보다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설득'이다. 설득은 '모든 상황에서 설득 수단을 발견해내는 것은 탁월한 재능' (아리스토텔레스)이며 '가치와 신념, 태도가 잘 짜여진 천과 같다' (로키치), 그리고 '설득은 상징을 사용해 공동으로 창조하는 과정' (라슨)이라고 정리 되어진다. 설득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언행이며, 강압이 아닌 스스로 동기유발이 되도록 권하여 사고와 행동에 변화를 만들어주는 고급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다. 설득을 위해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본능적 태도에 귀기울여야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명령은 듣기 싫어한다. 따라서 칭찬받기를 좋아하며 재미있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인간을 다른 생물과 달리 도구를 사용하고 언어를 구사한다는 고등동물로 보기도 하지만, 여러 동물들 중에는 세심하게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도 있고, 나름대로의 언어구사도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가구 1000만 이상의 오늘날 사회에서 보면, 반려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가족으로 대우받으며 가족구성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언어를 통해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하여 감동을 전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대사회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의 거의 대부분이 IT기기들이며 인터넷도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실시간 업데이트되고 있다. 그런 만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될 것인지가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불교에서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크다. 불교 포교의 가장 큰 힘이자, 가장 큰 핵심원리가 바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출가수행자는 불법을 전하는 중차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말 이전에 표정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미국의 UCLA대학의 알버트 메르비안 교수가 만든 메르비안 차트는 스피치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도식으로서, 말의 내용보다 비언어적인 것(음성적인 면, 시각적인 면)이 더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한국인은 얼굴의 근육 80여 개로 만들 수 있는 7000여 표정 중 거의 대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무뚝뚝하고 화난 얼굴이 전형적인 한국인의 얼굴로 보여진다. 그 중에서도 출가수행자인 스님들은 얼굴 표정이 아예 없다시피하다. 무표정은 중력에 의해 밑에서 끌어당기는 효과 때문에 화가 난 얼굴로 보이게 되며, 아무런 열정을 나타낼 수가 없다. 물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상한 면이나 따뜻함을 전달할 수도 없으며 설득의 길도 모호하다. 상대방에 대한 첫인상은 3~4초 이내에 형성되며 이 첫인상이 결정되는 주요 요인으로는 표정이 압도적이다. 이러한 표정에 단정 짓는 것은 100% 개인적인 소견이 작동한다.

이론적으로나 선입견, 편견 등도 있을 수 있으나, 첫눈에 결정지어지는 것을 덮기는 힘들다. 그 정도로 순간 형성되는 첫인상은 강렬하게 오래 유지된다. 부정적인 첫인상을 지우거나 긍정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몇 배의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야만 한다. 한마디로 첫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전달자와 수용자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감이 적을 때 친근한 느낌을 주며, 인간미 혹은 매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표정에 대한 관심과 인지, 노력, 변화를 위한 연습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부처님을 대신하여 불법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로서 스님의 표정은 불자들로 하여금 설득의 최대요소로 작용한다.

불교 이론 이전에 상대를 먼저 파악한다

설법을 하는 사람은 불자인 청자들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해야 한다. 청자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그에 맞는 설법 내용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불교는 신도 비율상 어르신이 대부분이라 상대 파악이 그리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설법자의 다양한 상대를 향한 준비는 여러 세대를 만날 첫 번째 필수 과정이다. 이제는 다양한

행동 변화 만드는 설득 기술
상대방 행동 변화 관심 필요
말이전에 얼굴, 행위서 작업
다양한 감각 · 소통키워가야

매체의 활용으로 인해 여러 세대들을 만날 기회가 열려있다. 따라서 노인용이 아닌, 시대적 흐름에 맞고 다양한 세대를 향한 구사력과 콘텐츠를 준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논리 정연함과 일목요연함을 두루 겸비할 필요가 있다. 대상에 대한 배려는 연령, 성별, 직업, 학력정도 및 생활정도 등으로부터 시작해 신행경력, 수행정도, 여러 특수계층, 불교에 대한 인연정도, 긍정적 수용력과 부정성, 시대적 어려움과 삶의 고통 등 사회를 향한 자상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더불어 사찰을 찾아오는 노인대상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설법서비스로 적극성을 펼 수 있다. 특히 불교에서 힘든 계층들에 대한 따뜻하고 능동적인 배려와 관심이 아쉽다.

오감 활용 표현스피치로 상상력 유도

스마트폰, 유튜브, 영화, 음악... 등 현대인들은 비주얼과 오디오에 매우 친숙하며 따라서 이를 활용한 도구나 시각적, 청각적 스피치로 다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찰은 풍부한 시청각자료들이 곳곳에 스며있어 보여주고 들려주는 스피치에 최적화된 장소다. 시주명단 제시용으로 만 주로 사용하고 있는 PPT는 불교의 국내 및 해외 시청각 자료들로 활용되면 대중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다. 젊은 세대들, 청장년층이 허약한 불교계에서 설법의 변화는 시대적 요청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도구들로 인한 멋진 상상력을 가능하도록 하며 이러한 상상력은 무한한 명상의 세계로 연결될 수 있다. 상상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은 태도를 유도하며 그 태도가 행동을 결정짓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 첫째 누군가를 만날 때는 역시 미소를 지으며 눈을 맞춘다. 둘째 만약 상대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고 싶다면 카멜레온처럼 변신에 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상을 붙잡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의 마음을 붙잡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피드백에 따라 계속 무언가를 따라하고 그것과 동일화하려고 애쓴다.

주위 사람과 나를 똑같이 만들면 우리가 같은 옷감에서 떨어져 나온 것만 같고, 무리의 일부라는 느낌을 들게 할 것이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상상력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결국 우리 모두는 상상력 안에서 살고 있다. 미래를 상상하지 않으면 과거를 그리워하게 된다.

부처님의 설법스피치를 통해 배운다

부처님은 〈법화경〉 방편품에서 사리불에게, 어떻게 가르침을 펴고 중생을 인도했는지를 말씀하신다. "사리불아, 여래는 갖가지로 분별하여 절묘하게 여러 가지 법을 잘 설하나니, 말씨가 부드러워 중생의 마음을 온통 기쁘게 하느니라. 사리불아, 요약해 말하면, 한량없고 가없는 미증유의 법을 부처님은 다 성취하였느니라." 여기에는 인연과 비유를 들어 가르침을 편 것과 수없는 방편으로 중생을 인도하고 차별 없는 마음을 내며 절묘하게 여러 법을 설함을 강조하고 있다.

① 사무애변(四無礙辯)을 갖춘 부처님의 설법 스타일을 배워보자.

1) 법무애변 (法無碍辯)이니, 온갖 교법(敎法)에 통달하여 걸림없이 말하는 것이어서 누구에게나 타당한 완벽한 진리의 가르침이다.

2) 의무애변(義無碍辯)이니, 온갖 교법의 바른 뜻을 알아 물샐 틈 없이 걸림이 없는 스피치이다. 때에 맞게 합당한 이치를 조리있게 설명한다.

3) 사무애변(辭無碍辯)이니, 여러 가지 말의 정의와 개념을 훤히 알고 통달하여 거리낌이 없다. 누구에게나 이해하기 용이하게 적절한 구사력으로 설득할 수 있다.

4) 요설무애변 (樂說無碍辯)이니, 온갖 교법을 알아 중생의 근기에 따라 중생이 좋아하는 대로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가 희열과 법열을 느끼도록 한다. 요설은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설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는 자의 상대방을 향한 자비희사의 마음이 펼쳐져야 한다.

② '4무량심(四無量心)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을 성취한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나느니라.'(유마경) 불국품에 나오는 4무량심은 설법자, 포교사의 스피치 자세를 알려준다.

첫째 자심(慈心)은 부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먼저 지녀야 한다. 수행의 중요성과 우선성을 말하고 있다. 둘째 비심(悲心)은 관세음보살처럼 모성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비심이 있어야 한다. 셋째 희심(喜心)은 스피치 기법을 살려서 친절함, 배려심의 기술을 배워 익혀 적절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펼쳐야 한다. 마음만 갖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실질적인 훈련의 중요성이다. 그래야 상대방과의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 수 있으며, 불법에 대한 저항없이 설득이 이루어진다. 넷째 사심(捨心)은 모든 사람들을 집착없이 평등하게 바라보며, 그들에 맞는 눈높이 스피치로써 그들을 제도한다.

③ 그런가 하면 4섭법(四攝事)도 부처님 스피치를 닮아가는 방법으로 중요하다. 부처님이 중생을 불도에 이끌기 위한 자비스런 스피치의 방법과 자세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첫째 보시섭(布施攝)은 내보시, 외보시, 무외보시 등이 있으며 보시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전달해야 한다. 둘째는 애어섭(愛語攝)으로, 자비스런 친절한 표정으로 시작된 말과 어투, 억양, 목소리 등을 말한다. 셋째는 이행섭(利行攝)이다. 즉 듣는 자가 이익이 되도록 애써야 함을 말한다. 말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나 준비한 말만 잔뜩 늘어놓는 것이 스피치가 아니다. 반드시 상대에 맞게 해야 하며, 상대가 이해하고 있는지, 상대가 감응을 받았는지 등을 주도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이야기해야 한다. 넷째는 동사섭(同事攝)으로 여러 계층의 사람들 특히 소외된 계층이나 연령층별, 세대별, 직업별 등을 골고루 넘나들며 접근하여 대상에 맞게 다가가야 한다.

〈불교스피치 전문가〉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수 감로수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효험 천수 감로수를
꼭 필요한 분에게 무료로 보시합니다.



천수 감로수를 개발한 지혜스님은 허약체질로 태어나 평생을 만성피로에 허덕이고 소화기능도 약해 잘 체하고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했으며 잦은 위통으로 음식 먹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수년간 병원과 한의원을 다녔어도 고통의 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매우 지장이 될 정도로 위염에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천수 감로수를 꾸준히 복용하고부터 만성 위통과 위염이 사라지고 현재 나이가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더 가벼워져 활기찬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위가 안 좋으면 몸의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를 못하여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합니다. 지혜스님의 기도와 정성으로 만든 천수 감로수는 위장병, 아토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장청소 등 모든 장기 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복용하고 효험을 본 천수 감로수를 조심스레 추천 드립니다. 탄산약수로 기도와 정성으로 천수 감로수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불자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 하려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십시오.

연화정사 신도 합장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상담전화 010-7455-6742 (지혜스님)



국내최초 · 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저렴한 비용!!

사업부
스틸대웅전 | 스틸한옥
일주문 | 한옥카페 | 문중재실
전시장 | 한옥인테리어 | 농막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

종파 초월한 임제종의 대종장



현견 스님의
중국 선 문화기행 Ⅱ

㉓ 파산 명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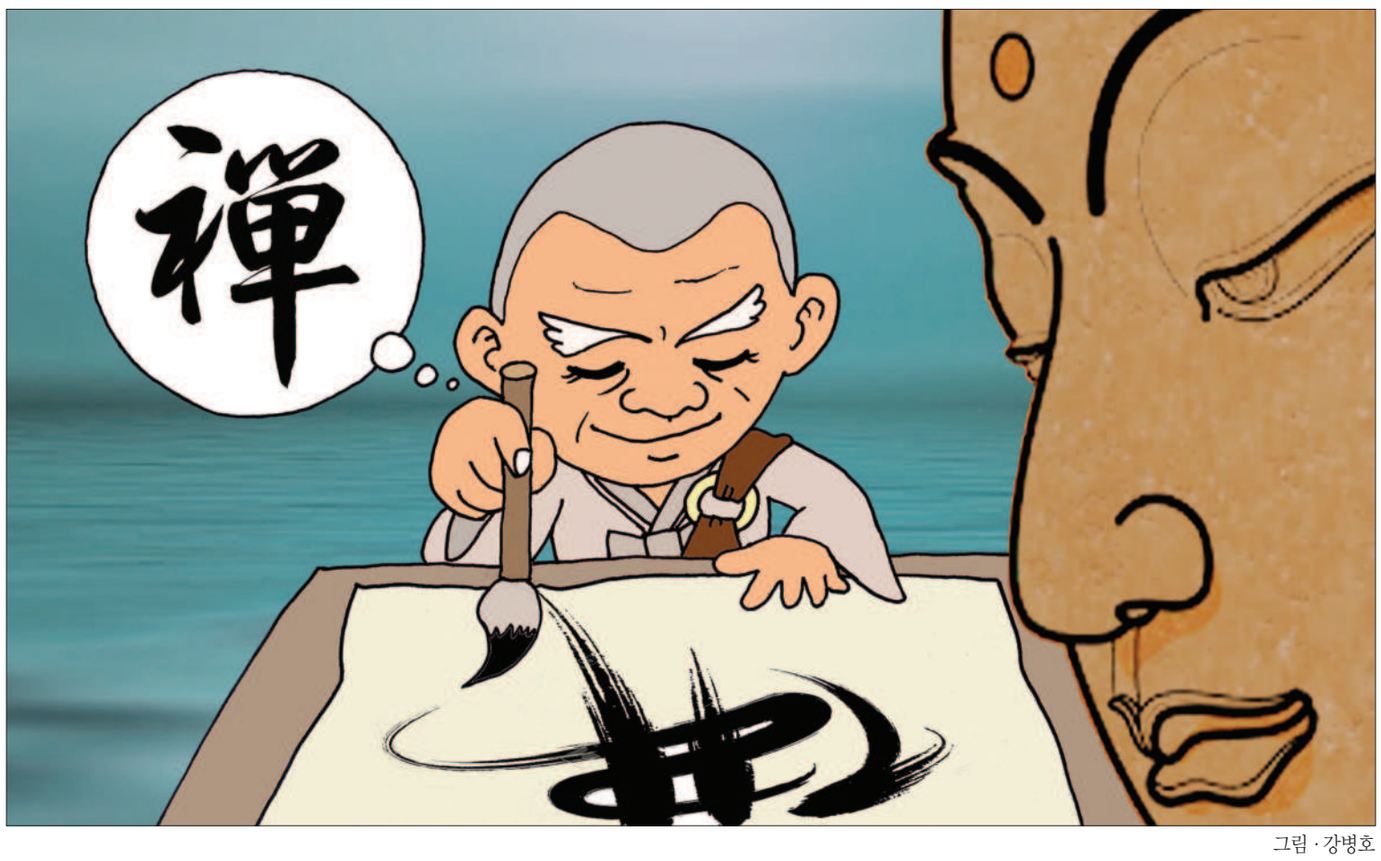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파산 명해(破山 明海, 1597~1666)의 속성은 건(蹇)씨이고 사천성의 대죽(大竹)인으로, 명나라 초 대학사인 건의(蹇義) 충정공의 후예이며, 강희5년(1666) 세수 70세에 입적하였다. 그는 불교의 거장으로 시인 서예가이기도 하며, 명말 청초의 중요한 선종의 대종장이다. 〈파산연보(破山年譜)〉에서 보면 19세 때 사천성 대죽현(大竹縣)의 불은사(佛恩寺) 대지율사에게 출가를 했고, 다음해 연복사(延福寺)에서 혜연(慧然) 스님으로부터 〈능엄경〉을 배웠고, 〈능엄경〉에서 말하는 일체중생 '개유상주진심(皆有常住眞心)' 사상은 그에게 심원한 영향을 주었다. 그 후 사천성을 떠나 강남의 선지식을 참방하면서 참선수행을 했다. 그는 처음 참선수행을 시작할 때 고봉 원묘의 방식을 따랐다고 전해지며, 후에 다시 천동사(天童寺)의 임제종 고승인 원오 밀운의 문하에서 다년간의 수행을 통해 마침내 개오했다. 또 그는 현재의 총칭시 교외 지역에 있는 쌍계당(雙桂堂)선원의 개산조이며, 당시의 사람들이 세칭 '소석가(小釋迦)' 라고 칭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 서남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청초에 승가교육을 추진하기도 했고, 선학교육을 위해서 깊고 예리한 통찰력으로 〈복호사개학업선당연기(伏虎寺開學業禪堂緣起)〉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밀운 원오의 선법을 계승한 파산 명해의 선법이 두드러지게 표현된 곳은 간화선에 대한 태도이다. 그는 기타 선사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는 선(간화선) · 정(淨) · 교(敎)를 협치의 관계로 보았다. 이점을 그의 선법에서 중요한 특색이라고 하는데, 그가 지은 〈학도사잠(學道四箴)〉에 잘 나타나 있다. 그의 선학 사상을 중국불교학자인 황하년 선생은 네 가지로 분석했는데, 즉 선과 정토, 선과 교, 선과 율, 화두참구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선과 정토의 협치로, 파산 명해는 이 두 가지 모두 방편 법문이 된다고 여겼다. 즉 "대저 불조의 방편은 견고한 것이 많지만, 이것을 요약하면 두 종류를 벗어나지 않는데 곧 선(禪)과 불(佛)이다. 참선을 믿으면, 참선에 뜻을 세우고, 염불을 믿으면, 염불에 뜻을 세운다. 비록 돈점이 같지 않으나 곧 모두 하나의 생사심을 벗어나는 것이다"고 했다. 즉 이러한 관점을 근거로 본다면, 곧 참선과 염불은 근본적으로 같은 도리라는 것이다. 이 점은 송대 이후 선사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바이며, 선종에서 강조하는 일심사상을 벗어난 것도 아니다. 그는 다시 강조하기를 "참선염불은 본래 하나의 도리이다. 염불을 염(念)하는 것도 이 마음이고, 참선을 참구하는 것도 이 마음이다. 마음 밖에 다른 법이 없고, 법 밖에 다른 마음이 없다. 오직 이 일심이며 다른 기로가 없다"고 했다. 여기서 참선은 화두참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그의 화두참구는 주로 염불하는 자가 누구인가에서, '수(誰)' 자를 참구했으며, 동시에 이 화두를 가지고 후학을 제접하기도 했다.

두 번째는 선과 교의 협치로, 그는 이 두 가지의 법문이 서로 병존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는"참선과 교(敎) 두 가지의 법문은 심천(深淺)이 있다. 그러나 심(深)은 선이고, 천(淺)은 교이다. 다만 언어로 나타낸 것은 곧 추상분(麤相分)이며 모두 교이다. 만약에 교의 요의(了義)를 통달하면 곧 선이고, 또한 여래선이다. 조사선은 아니다"고 하고 있다. 즉 선과 교는 심천(深淺)이 다를 뿐이며, 교의 요의(了義)를 요달하면 그게 바로 '선' 이며 '여래선' 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의 관점은 시종 선을 우위에 두면서 선교일치 내지 협치를 말하고 있다.

세 번째는 선과 율의 일치로, 지계와 참선을 둘로 보지 않았다. 즉 지계본체 자체가 곧 '일심' 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누어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가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바라제목차를 설했는데 이름이 십중(十重)이며, 48경이 이 계의 차등으로 대소승이 이것이다. 만약에 본(本)을 논하자면, 다 일심으로 돌아간다. 일심은 불생이며, 만법에는 허물이 없다. 계를 가지지 않는 것이 없고, 마음이 하나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진원대계(真圓大戒)의 총지(總持)이다." 여기서 바라제목차는 범어의 음역인데 '계' 를 말한다. 그는 '일심' 이 계체(戒體)의 자체가 되기 때문에, '일심불생' 이며 곧 지계를 구현하는 최고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관점은 육조 혜능의 무상계를 연상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유사성도 존재한다.

禪 · 佛 · 敎의 협치관계 정립도
참선과 염불 근본적 같은 도리
전국 행각하며 고승 대덕 친견

네 번째는 화두 참구이다. 사실 위의 세 가지 일치사상의 관점은 모두 선사의 입장에서 선종을 더욱 드러내기 위한 태도이기도 하다. 그는 일생을 참선에 몸을 바쳤고 특히 "한 구의 화두로 도독고(塗毒鼓, 독을 칠한 북소리를 듣게 해서 죽게 만든다)를 친다"고 했다. 그는 간화선이 선법의 최고가 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간화선을 제창했다. 또 그의 화두관은 매우 독특했는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일체의 사물들이 다 화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반드시 조사의 공안어구(公案語句)를 고집하고 준수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위에서 간단하게 소개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가 비록 제종의 통합을 발의해서 널리 선양했지만, 사실 이러한 행위는 이전의 고승대덕들도 이미 강조했던 내용들로서, 그리 특이한 점은 아니다. 다만 그는 이러한 형식을 취해서 더욱더 자기의 사상체계를 보충 보완하고 발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파산 명해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 전국을 행각하면서 당시의 영향력이 있는 고승대덕들을 친견해서 법을 구하기도 했다. 중국 선종에서 행각은 사방(四方)을 운요(雲遊)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통의 시작을 〈조정사원(祖庭事苑)〉에서 "행각이라는 것은 고향을 멀리하고, 천하를 행각하면서, 정(情)을 벗어나고 묶여 있는 여러 가지를 버리는 것이며, 선지식과 스승을 심방(尋訪)해서 법을 구하고 증오(證悟)하는 것이다. 그래서 배움에는 일정한 스승이 없다는 것으로, 편력(徧歷)을 숭상하는 것이다. 선재는 남쪽에서 청하고, 상제(常啼)보살이 동쪽에서 청한 것은 대개 선성(先聖)의 구법이 된다. 영가(永嘉)는 이른바 강해(江海)에서 혜엄을 치고, 산천을 돌아다니다가 스승을 찾고 도를 참구해서 참선을 했다. 어찌 삿되게 그렇지 않다고 하리요"라고 했는데, 행각의 의미는 위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으로, 즉 운요수행(雲遊修行)을 가리킨다. 이 방식은 선종의 수행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도 깨달음을 얻은 후에 사방을 참학하면서, 한편으로 법을 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의 선경(禪境)을 선지식들로부터 검증 받고 인가 받는 것을 목적에 두고 전국 각지를 행각했다.

기록에 의하면, 그가 이와 같은 행각을 통해서 운요수행을 할 때, 당시의 유명한 고승 대덕들을 참방하거나 가르침을 청해서 교류했다고 전해진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감산 덕청(憨山 德淸, 1546~1623)으로 주굉(袾宏) 진가(眞可) 지욱(智旭)과 함께 명대 4대 고승 가운데 한 사람이다. 감산 덕청도 역시 선정(禪淨), 선교일치를 주장했던 선사로서, 생전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은 저술을 하기도 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능엄경통의(楞嚴經通議)〉 〈관능가경기(觀楞伽經記)〉 〈법화경통의(法華經通義)〉 〈자술연보(自述年譜)〉 및 그가 입적한 후에 제자들이 편저(編著)한 〈감산노인몽유집(憨山老人夢遊集)〉등이 있다. 파산 명해는 〈능엄경〉의 묘명진심(妙明眞心)에 대해서 특별한 흥미를 가지고 때때로 익혀서 마침내는 마음이 익숙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는 친히 강남의 여산(廬山) 아래의 법운사(法雲寺)에서 77세 고령의 감산 덕청을 참방하고 이것에 대한 가르침을 청했다.

다음은 조동종 계통의 무이 원래(無異 元來, 1575~1630)를 참방했는데, 무이 원래는 명대 조동종의 고승으로 당시 조동종의 유명한 고승인 무명 혜경(無明慧經, 1548~1618)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무이 원래는 본래 조동종의 선사이지만, 역시 평생 선정불이(禪淨不二)의 종지를 제창하였다. 파산 명해가 26세 때 의기충천하고 패기가 넘치는 혈기 왕성한 시절에 중국 전역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무이 원래를 참방하고 가르침을 청했다고 전해진다.

설교 원신(雪嶠 圓信, 1571~1647)은 임제종의 선사로서, 환유 정전(幻有 正傳, 549~1614)이 배출한 대덕으로, 그로부터 인가를 받고 선법을 계승했으며, 밀운 원오(密雲 圓悟) 천은 원수(天隱 圓修)와 더불어 이 세 사람은 각각의 지역에서 임제종을 중흥시킨 인물이며, 아울러 명 말 임제종의 유명한 종장들이다.

담연 원징(湛然 圓澄, 1561~1626)선사는 조동종의 운문 계통의 선사이다. 파산 명해는 그로부터 구족계를 받았으며, 항주의 보국선원(報國禪院)에서 담연 원징을 참방했다고 한다. 처음 만나 선문답을 통해 의기투합했으며, 몇 번의 기봉(機鋒, 날카로운 선어)을 주고받으면서 그는 담연 원징에게 매우 감복했다고 한다. 담연 원징은 파산 명해가 혜근(慧根)이 출중함을 알고 그의 법요(法要)를 전수해줄 뜻이 있었지만, 기연이 맞지 않아서 그로부터 인가는 받지 못했다고 한다.

밀운 원오(密雲 圓悟, 1566~1642)는 임제종의 선사로서, 환유 정전(幻有 正傳)의 제자이며 그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그 후 용지산(龍池山) 우문사(禹門寺)에서 선법을 전수하기 시작했고, 다시 강남 일대의 천태산 황벽산 천동산 등지에서 30여 년 교화를 했다. 기록에 의하면 제자가 3만은 넘었다고 한다. 비교적 유명한 제자로서 도민(道忞) · 도용(通容) · 법장(法藏) 등을 꼽을 수가 있다. 파산 명해가 담연 원징으로부터 구족계를 받은 후에, 항주의 서산에 이르렀을 때 중병을 앓고, 막 병마를 벗어났을 때, 당시 밀운 원오는 막 절강에 있는 천영사(天寧寺)를 맡았다. 파산 명해는 이때 병색이 짙은 형상으로 그를 친견하였고, 그 후 대부분 시간을 밀운 원오 곁을 떠나지 않았고, 마침내 그에게서 인가를 받고 정식으로 '조계정맥' 을 이은 임제정법의 선법을 전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위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파산 명해선사는 어느 특정 종파에 구애받지도 얽매이지도 않으면서, 진정으로 구법을 위해서 제종파를 초월하는 실천수행을 했으며, 전국 각지를 유역하면서 평생토록 신심을 바쳐 마침내는 본인이 목적한 바를 달성했던, 그 시대를 대표하는 선종의 대 거장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동국대 강사〉





한국 '산신'과 비슷한 토속신앙 '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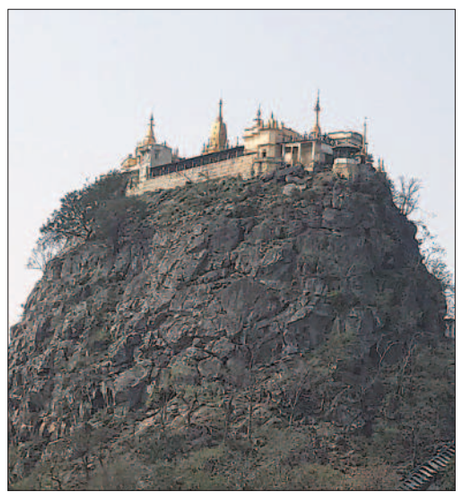


최재희의
비긴어게인 미얀마

㉓ 미얀마에도 산신각이 존재할까?



미얀마의 토속신앙인 '낫' 신은 한국의 산신과 흡사하다. 사진은 뽀빠산의 부처님과 '낫' 신.



뽀빠산 전경.



'낫' 신들의 다양한 모습.

불교는 나와 우리 가족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는 잦은 방황으로 췌장염을 앓게 되셨다. 어린 마음에 술을 많이 마시고 병을 얻은 아버지가 많이 원망스러웠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입학한 후 친해진 스님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스러움을 토로했다. 가만히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스님은 "재희보살, 아버지를 원망하는 돌덩어리를 왜 가슴에 갖고 다니시오? 우리가 만난 것도 부처님 인연법인데, 아버지께서 그런 습관을 갖게 되신 것에도 인연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아버지를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게나"라고 하셨다. 스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터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 후부터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같이 대화하는 시간도 많이 늘게 되었다. 산을 좋아하는 아버지에게 절에 갈 때마다 산신(山神)이 모셔져 있는 산신각(山神閣)에 가서 꼭 3배하라고 권유했다. 아버지께서 산신각에 자주 방문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매년 아버지를 위한 일년등을 달아드리고 있다.

그런데 불교에는 없던 산신이 어떻게 우리나라 절에 존재하게 된 것일까? 불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전래될 때, 기존에 있던 신앙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았다. 전래되는 나라에 맞게 불교는 기존의 신앙을 습합한 후 뿌리를 내린다.

미얀마에는 우리나라의 산신각과 비슷한 '낫(Nat)' 신앙이 존재한다. 낫신앙은 미얀마에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 존재하던 자연, 조상, 영웅숭배와 결합된 토착신앙이자 민간신앙의 뿌리였다. 낫이라는 단어는 빨리어에서 보호자라는 의미를 지닌 나따(N?tha)에서 기원한다. 원래 낫은 땅, 하늘, 산, 계곡, 집에 깃든 정령들과 조상, 영웅 등의 영혼인 귀신을 모두 포함해서 수백가지의 종류가 있었다. 미얀마의 135개 소수민족들에게 공통적인 낫도 있지만, 민족의 특징을 담은 독특한 낫들도 존재한다.

보통 한국에서 모시는 신들은 인간을 이롭게 도와주기 때문에 모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얀마의 낫은 잘 모시지 않으면 원한을 품어 해로움을 주기 때문에 잘 경배해야 한다고 믿는다. 보통 낫으로 모셔지는 신들은 억울함을 품고 죽었거나, 원한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술에 취해 객사한 낫, 그네를 타다 죽은 낫, 출산을 하다 죽은 낫 등 현생에서 한(恨)을 품어 낫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낫을 잘 모시지 않아 노여움을 사게 되면 괴롭힘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낫이라고 해서 무조건 악한 낫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미얀마 스님들 중에서는 낫의 존재를 따로 인정하지 않지만, 토속신앙으로 오랫동안 고착된 낫이기 때문에 불교 속에 포용해서 미얀마 사람들의 두려움을 덜어준다.

미얀마 사람들은 선한 낫에게는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악한 낫에게는 원한을 내리지 말라고 기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낫들에게 음식, 과일, 물, 꽃, 돈을 공양한다. 또한, 자신의 집에 낫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한다. 낫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경전을 외운 물을 나뭇잎에 적셔서 집안의 방과 대문, 침대, 옷장, 등등 다양한 공간에 뿌린다. 혹은 가족들의 머리에 뿌려 주기도 한다. 미얀마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의 고난과 어려움을 낫의 소행이라고도 믿는다. 이럴 때 낫의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 〈보석경(寶石經)〉을 독송한다.

낫은 미얀마에 상좌부 불교가 전래되기 전까지 수백가지, 수천가지가 넘어 정리가 되지 않았다. 또한 힌두교, 불교, 낫 신앙이 섞여 불분명한 종교로 혼합되어 가고 있었다. 바간 왕조를 세운 아노야타(Anawrahta)왕은 혼란스러운 사회를 정비하고자 상좌부불교를 바간으로 가져왔다. 하지만 낫신앙은 미얀마 사람들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정리하는 것이 어려웠다. 아노야타 왕은 기존의 낫들을 37가지 낫으로 정리하여 스님들과 함께 낫을 불교의 수호신으로 받아들여 상좌부불교와 자연스럽게 융화되게 하였다. 미얀마 불교 사원에 가면 부처님 옆을 지키고 있는 낫 수호신들을 발견할 수 있다.

원한 있는 '낫'이 상당수
잘 모시지 않으면 괴롭혀
고난의 이유로 여겨지기도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경전 외우며 물 뿌리기도

바간에서 약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하면 낫 신앙의 본거지인 뽀빠(Popa)산에 도착한다. 뽀빠는 산스크리트 단어에서 기원했으며 '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꽃이라는 의미는 뽀빠산의 전설에서 기원한다.

"아노야타는 자신의 신하에게 뽀빠산 정상에 매일 꽃 공양을 올릴 것을 명령했다. 신하는 왕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매일 같이 산에 올랐다. 그러다가 뽀빠산의 여신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사랑에 빠진 신하는 뽀빠산의 여신과 아이를 낳았고 왕의 지시를 점점 따르지 않게 되었다. 자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 몹시 화가 난 왕은 신하를 죽였고, 두 아들까지 죽여버렸다.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한 뒤 낫이 되었다.'

억울한 이들이 죽어 낫이 된 뽀빠산은 화산 폭발로 인해 생겨난 1518m 높이의 산이며 미얀마 37명의 낫들이 모셔져 있는 곳이다. 이 곳은 777개의 계단을 오르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산을 오르다 보면 37명의 낫들의 사당과 부처님을 볼 수 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뽀빠산에는 수 많은 원숭이들이 살고 있다. 뽀빠산에 오를 때는 특히 원숭이들이 공격을 하거나, 물건을 훔쳐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미얀마에는 '불교'만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낫 신앙 이야기를 해주면 매우 놀란다. 미얀마에 부처님의 올바른 정법이 전해지기 전 비법(非法)을 전하던 승단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더더욱 놀란다. 자타카에는 인도의 상인들이 황금을 얻기 위해서 수완나부미(황금의 땅)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가 존재한다. 황금의 땅이 어디인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미얀마 사람들은 수완나부미가 미얀마임을 확신한다. 미얀마에는 옥, 루비, 사파이어, 황금 등 많은 보석이 채굴된다. 또한 미얀마의 어느 동네를 방문하든 황금탑은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다. 과거부터 찬란한 불교 역사와 수 많은 황금탑으로 미얀마는 황금의 땅, 황금의 나라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황금의 나라 미얀마에도 부처님의 올바른 법이 뿌리 내리기 전 삿된 무리가 불교를 이용하여 미얀마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린 적이 있었다. 벵갈지방에서 미얀마로 변질된 밀교 계통의 승단이 들어왔다. 이 승단의 스님들을 아리(Ari)라고 일컬었다. 이들은 미얀마 사람들의 삶 속에 빠르고 깊숙이 침투하게 되었다. 그들은 머리를 기른 상태로 절 안에서 거주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업과 죄를 소멸하기 위해 뱀을 숭배하고, 온갖 주문을 외워 백성들을 현혹시켰다. 또한 결혼한 부부들은 첫날밤을 가지기 전, 아리승들에게 자신의 부인을 바쳐야 하는 '순결의 꽃'이라는 의식을 치뤄야 했다. 아리승들은 아침과 저녁마다 백성들에게 쌀밥, 소고기, 술 공양물을 올리라고 지시했다. 아리승단의 교세가 강해졌을 때는 30명의 아리승들 아래 약 7만명의 신도들이 있었다. 아리승단은 아노야타왕의 상좌부불교 도입과 함께 자연스럽게 소멸하여 현재는 미얀마에 존재하지 않는다.

미얀마 사람들은 원한을 품은 낫들의 한을 달래며, 자신들의 재난과 재앙이 소멸되기를 기원한다. 낫 신앙의 영향 때문인지, 미얀마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자신에게 악감정을 품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한다. 아무리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타인들 앞에서는 절대 티내지 않는다. 불교는 미얀마에 전래되면서 정령신앙인 낫 신앙을 포용하고 바르지 못한 아리승단을 파사현정(破邪顯正, 나쁘고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했다. 미얀마 불교 속 낫신들을 만나고 싶다면, 코로나19 이후 꼭 뽀빠산으로 만나러 가길 바란다. 그리고 낫신들과 마주하며 지난 날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양곤대 박사과정〉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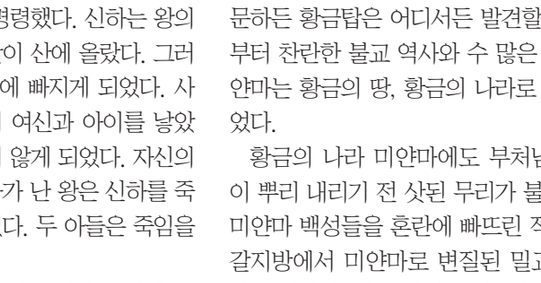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연꽃칠성촛대 연꽃촛대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 양초 보시 대행 ✲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컴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원난방산업 www.garden-heating.com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010-3267-1263

動과 靜 한쪽에 치우지지 말라
〈동〉 〈정〉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㊻ 정처(靜處)와 요처(鬧處) 공부

"여러분, 진정한 도심(道心)은 대단히 어렵고 불법(佛法)은 그윽하고 현묘한 것이지만 알고 나면 별것 아니니라. 산승이 종일 말해 주어도 배우는 사람들이 모두 주의하지 않고 천 번 만 번 발바닥으로 땅만 밟고 다니면서 깜깜해 뭐가 뭔지 모르느니라. 아무런 형체나 모양이 없는 것이 밝고 뚜렷하게 홀로 비추고 있건만 배우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언어 문자로 이해하려 하나니라. 반백 년 오십 년이 넘도록 옆길로만 빠져 죽은 시체를 짊어지고 짚신이 닳도록 천하를 돌아다니고 있으니 짚신 값을 갚아야 할 날이 있으리라.

대덕들이여, 산승이 밖으로 향해 찾을 법이 없다고 말해 주면 배우는 사람들이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하고 법이 안에 있나 하고 곧 벽을 보고 앉아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고요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 조사 문중의 불법이라 집착하나니 이는 큰 착각이니라. 만약 그대들이 움직임이 없는 청정한 경계를 불법이라 여긴다면, 그대들은 저 무명 번뇌를 주인이라고 잘못 아는 꼴이니라. 옛사람이 이르기를 "깊고 깊은 캄캄한 동굴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니라.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두 가지 경계일 뿐이니, 실제로 의지함이 없는 사람(無依道人)은 움직임을 쓰기도 하고 움직이지 않음을 쓰기도 하느니라."

사람이 누구나 발심하면 수도(修道)를 할 수 있지만 도를 얻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임제도 이 점을 상기시키며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또한 불법은 그윽하고 현묘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어렵다고만 생각하면 수행을 할 수가 없다.

고봉 원묘(高峰 原妙, 1238~1295)는 〈선요(禪要)〉에서 참선의 삼요(三要)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대신근(大信根), 대분지(大奮志), 대의정(大疑情)이다. 크게 믿고 크게 분발하고 크게 의심한다는 말이다. 이는 간화선 공부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에 임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수행의 공부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지만 깨닫고 보면 별것 아니라 한다. 뭐든지 알고 나면 쉬운 것이다. 공부가 되었다 해서 신통을 발휘하는 초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중국 송대의 소동파가 여산의 절강에 가서 보고 지은 시가 있다.

廬山煙雨浙江潮
여산의 실안개비 절강의 물결이여
未到千般恨不消
가보지 않았을 땐 온갖 한이 남더니만
到得還來別無事
가서 보고 오니 아무 별것 없고서
廬山煙雨浙江潮
여산의 실안개비 절강의 물결이네

이 시는 소동파의 오도송 격으로 보기도 하는 시다. 소문만 듣고 가보지 않았을 땐 못 본 것이 한이었는데 가보고 나니 별것 아니더란 말이다. 방(龐) 거사도 도인의 신통이 "땔감 나무해 오고 밥 짓는 물 길어 오는 것(神通幷妙用 運水及搬柴)"이라 하였다. 깨닫고 나면 깨달음이 특이한 신비도 아니고 본래 그러한 것이란 뜻으로 하는 말이다.

그런가 하면 도를 깨닫는 것은 아주 쉽다는 말도 있다. 비유하여 세수를 하다가 얼굴의 코를 만지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극과 극을 통하게 한 말처럼 느껴진다.

이 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신을 등지고 밖으로 찾아다니는, 짚신(신발) 닳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또 하나는 면벽하여 죽치고 앉아 혼침에 떨어지는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른바 동(動)과 정(靜)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경책이다. 비록 납자(衲子)의 가풍을 운수행각(雲水行脚)이라 하지만 제 물건 못 찾으면 송장을 지고 다니면서 신발만 닳게 할 뿐이고, 죽치고 앉아 혼침에 빠지면 깊은 동굴에 빠져 헤어날 줄 모른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처(靜處) 공부와 요처(鬧處) 공부가 둘이 아니라는 말이다. 캄캄한 동굴이 무섭다는 것은 몸이 동굴이며 선정(禪定)을 잘못 닦다 마경(魔境)에 빠지는 것을 경계한 말로 볼 수 있다. 〈능엄경〉 9~10권의 내용이 모두 마경을 가리는 변마장(辨魔章)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같은 대답으로 갈등선 깨우쳐
〈葛藤禪〉



세상 속 경전읽기

㊻ 병정동자래구화(丙丁童子來求火)

〈벽암록(碧岩錄)〉 제7칙의 평창(評唱)에 '병정동자래구화(丙丁童子來求火)'의 선화(禪話)가 나온다. 법안 문익(法眼 文益, 885~958)이 보은 현칙(報恩玄則, 900~975)의 갈등선(葛藤禪 종지를 알지 못하고 말에 떨어진 선)을 깨우친 내용이다.

현칙은 중국 오대(五代) 송 초의 스님으로 활주(滑州, 현재 하남 활현) 위남(衛南) 사람이다. 처음에는 청봉 전초(青峰 傳楚)를 찾아뵙고 문답하였으나 뜻에 맞지 않자 문익에게 가서 참구하여 말끝에 문득 깨닫고는 그에게 의지하여 머물렀다.

"현칙 감원(監院, 선원의 살림을 총괄하는 직책)스님은 법안 스님 회상에서 지내고 있었으나 스님께 도무지 참청(參請, 스승을 찾아뵙고 가르침을 청함)하지 않았다.

하루는 법안 스님이 그에게 물었다. '감원은 무엇 때문에 다른 학인들처럼 법문을 청하지 않느냐?'

현칙: 저는 청봉(青峯) 스님의 처소에서 이미 입실(入室, 수행자가 친히 스승의 지도를 받기 위해 그의 방에 들어감)한(깨달은) 바 있습니다. 큰스님은 그 일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안: (그 때의 일을) 그대는 시험 삼아 다시 나에게 말해보라.

현칙: 저는 그 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청봉 스님은, '병정(丙丁) 동자가 찾아와서 불을 구하는군'이라고 하였습니다.

법안: 좋은 말이구나. 그러나 그대가 잘못 알고 있을까 걱정되니 다시 말해보라.

현칙: 병정(丙丁)은 [오행(五行)에서] 화(火)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불이 불을 구하는 것이니, (마치) 제가 부처인데 다시 부처를 따로 구하는 것과 같지요.

법안: 감원이 과연 착각을 하고 있군.

그 말을 들은 감원은 (그 자리에서) 분(憤)함을 드러내지 않고 바로 (법안 스님 회상을) 떠나버렸다.

법안 스님은 혼잣말을 했다. '이 사람이 되돌아온다면 구제할 수 있겠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

현칙 스님은 길을 가는 도중에 가만히 홀로 생각해 보았다. '법안 스님은 5백 대중을 거느린 (존경받는) 선지식이다. (그런 분이) 어찌 나를 속였으랴.'

이윽고 되돌아 와 다시 스님을 뵈니, 법안 스님이 말하였다. '너는 다만 나에게 물으라. 내가 너를 위해 답해주리라.'

현칙: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법안: (청봉 스님이 했던 답변과 똑같이) 병정 동자가 찾아와서 불을 구하는군.

그 말이 떨어지자 현칙 스님은 언하(言下)에 크게 깨달았다.

〈佛果圓悟禪師碧巖錄 T2003_.48.0147b13–b24〉

현칙은 청봉 스님의 간절한 답변에 대해, 생각으로 헤아린 알음알이를 내고, 깨달았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법안이 인가하지 않자 제자 현칙에게 의단이 일었다. 그런 그에게 법안이 동일한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여, 청봉과 똑같은 대답을 하니, 현칙의 생각이 막혀버렸다. 법안 스님과의 문답이 표면상으로는 전과 똑같은 문답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법안 스님의 '병정동자래구화(丙丁童子來求火, 병정 동자가 찾아와서 불을 구하는군)' 라는 답변에, 생각이 막히고 헤아림이 끊겨 생각 이전의 자리에서 깨달은 것이다.

약간의 어구차이만 있을 뿐, 같은 줄거리가 〈직지(直指)〉의 보은 현칙 제하(題下)의 글에도 나와 있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㊷ 깨침의 길 7

보살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래 전의 일이다. 어느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 평소 알고 지내던 불자 한 분을 만났다. 나는 반가운 나머지 '안녕하세요, 보살님.' 하고 인사를 드렸다. 순간 식당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 무속인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일었다. 그러면서도 불교용어를 사용하는 데 남의 눈치를 봐야 되나 하는 생각에 화가 올라왔다. 무속인은 '보살'이란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 용어에 담긴 의미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살은 어떤 삶을 지향하는 것일까? 보살이 지향하는 길을 보살도(菩薩道)라 하는데, 발심(發心)과 원(願), 행(行)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발심은 글자 그대로 마음을 내는 것이다. 본래 발심은 발보리심(發菩提心)의 준말이다. 보리(菩提, bodhi) 즉 진리,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는 뜻이다. 이는 불성이라는 씨앗을 땅에 심는 일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불교는 깨침을 목표로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발심이 되었는가 아닌가에 따라 출가와 가출을 구분하기도 한다.

발심이 되었으면 이를 구체적인 삶의 목표로 확립해야 하는데, 이것이 보살도의 두 번째 단계인 원(願)이다. 이는 보살로서 '이렇게 살겠다.' 라는 굳은 다짐이다. 보살과 중생을 구분하는 기준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보살은 원으로 사는 사람(願生)이고 중생은 욕심으로 사는 사람(欲生)이다. 원에는 모든 보살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총원(總願)과 각자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별원(別願)이 있다. 대표적인 총원이 널리 알려진 사홍서원(四弘誓願), 즉 네 가지 큰 서원이다. 이는 중생을 모두 구원하겠다는 서원을 시작으로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워서 마침내 불도를 이루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된다. 여기에서 불교의 깨침과 닦음은 중생구제를 위한 길로써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불교의 모든 의식이 사홍서원을 합송하면서 마치는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사홍서원은 현실적으로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원이 커도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자의 능력이나 여건에 맞는 서원이 요청되는데, 별원이 바로 그것이다. 예컨대 의사가 환자들을 '내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진료하겠다.' 고 다짐한다면 매우 훌륭한 별원이 된다. 개인적으로 강의를 위해 집을 나설 때 '오늘은 조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는 별원을 세우곤 한다.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원을 세울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결과는 분명 다르다.

아무리 서원이 간절하다고 해도 그것을 현실에서 이루기가 결코 만만치 않다. 그래서 필요한 일이 바로 수행이다. 마음을 내고 서원을 세웠다면,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것이 보살도의 세 번째 단계인 행(行)이다. 이 단계가 다름 아닌 대승불교의 실천체계인 6바라밀이다. 보시(布施)와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智慧)는 보살도를 완성하기 위한 수행이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 모두 괴로움이 가득한 이곳(此岸)에서 괴로움이 멸한 저곳(彼岸)으로 도달한다(到)는 것이 대승의 이상이었다. 이것이 다름 아닌 바라밀로써 지혜의 완성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보살은 마음을 내어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살은 발심과 원, 행이라는 세 가지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다. 앞에서 '보살'에 담긴 의미가 성스럽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철학에 바탕을 두고 삶을 살기 때문이다.

이름에는 그에 부합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준엄한 책임도 함께 따른다. 다른 이의 아픈 상처를 보듬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욕심을 챙긴다면, 보살이라는 이름에 담긴 거룩한 의미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보살이란 이름을 함부로 쓰고 있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진정 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삶의 일부, 마음챙김 프로그램

명상書 톺아보기

존 카밧진 등의

'마음챙김으로 우울을 지나는 법'

〈6〉 모든 것을 엮다



지금까지 수련법을 알게 됐다면 이제는 프로그램 전체를 체계적으로 경험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8주간의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를 단계별로 안내한다. 이 작업에 임하는 최선의 방법은 8주의 시간을 마련해 매일 한시간씩 명상 수련에 전념하는 것이다.

모든 기술 습득과 마찬가지로 이 책에 소개한 마음챙김 수련도 배움에 임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수영을 예로 들면 강사가 수영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면 수강생은 직접 물속에 들어가야 한다. 물에 뜨는 법에 관한 설명이 아무리 훌륭해도 스스로 경험해야 한다.

마음챙김 수련도 마찬가지다. 설명 뒤에는 체험으로 나아가야 한다. 수영이든 수련이든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물에 잠깐 몸을 담가서는 헤엄치는 법을 제대로 배울 수 없다. 명상 수련도 한두번으로 장기효과를 보기 어렵다. 명상 수련도 한두번으로 장기 효과를 보기 어렵다. 어떤 때는 매우 지루하다고 여길 수 있다. 그 밖에 들뜸, 실망, 초조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언제라도 알아차림에 가볍게 담을 수 있음을 기억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저자들의 MBCT 프로그램은 8주 동안 배움이 지속적으로 심화하도록 매주 새로운 요소를 소개한다. 그러므로 명상 수련 시간을 스스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

명상 안내문이 어렵거나 지루하게 느껴져도 할 수 있는 한에서 안내를 따라 수련한다. 수련이 힘들어지면 결과와 행위 중심의 마음모드에 익숙한 우리는 평화로운 상태를 바라며 다음 수련으로 넘어가기 쉽다. 이런 때는 수련의 목적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또 이완된 상태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아님을 기억하자.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이완과 마음의 평화는 수련의 반가운 부산물이지 그 자체로 수련의 목적이 아니다. 만약 수련에 '목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지금 나의 경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현존하는 것이다. 오롯이 깨어있고, 온전히 살아있으며, 지금 이대로의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수련의 목적이라면 목적이다.

명상 수련에 필요한 노력은 '목적지'에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 계속 체크하는 노력이 아니다. 인내와 전념, 신뢰 등의 현명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 나비가 어깨에 앉기를 바라며 조바심을 내면 나비는 더 앉지 않는다. 이때 할 일은 억지로 나비가 내려앉게 만들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나비 스스로 내려앉기를 지켜보는 것이다.

책의 수련법으로 마음챙김을 계발하는 시간을 매일 정해두는 것도 좋다. 나를 위한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지혜로운 자기 사랑의 행위다. 수련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려면, 현재의 생활 패턴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하루 중 대부분 시간을 가족과 직장 또는 잠으로 가득 채운 상황에서 8주 동안 수련에 전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좋을 때나 싫을 때나 수련에 전념하며 지속하는 것 자체가 마음챙김 연습의 일부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전념하고 지속하지 않으면 수련을 하려는 처음의 귀한 의도가 더 중요해 보이는 다른 일에 밀려난다.

마음의 행위 모드는 오늘 수련을 건너뛸 구실을 얼마든지 떠올린다. 그러므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 정식 수련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려면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할 수 있다. 그래야 필요한 잠을 줄여가며 수련하는 일이 없다.

수련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면 이제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한 주변사람에게 알려 그들이 방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만약 수련중 전화가 울려 당신 외 받을 사람이 없다면 그냥 울리게 놓아두자. 누가 전화를 걸었든 지금은 오로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다. 이 것만으로 24시간 연결된 시대에 나에게 자양분을 주는 강력한 수련이 된다. 수련시간은 자신과 잘 연결하지 않는 오늘날, 자기변화를 위해 자신과 연결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 "'이대로 나' 수련의 목적 목적까지 도달 점검보다 어떻게 노력하는지 중요 내면의 자원을 발견하자"

수련을 방해하는 외부요소보다 힘든 것은 내면의 방해요소다. 우리는 실제로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방해한다. 이는 특정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며 마음을 관찰해보면 저절로 드러난다.

수련을 방해하는 요소에는 방황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계획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강박적으로 반추하는 마음 등이 있다. 해야 하는 일이 수시로 마음을 비집고 들어온다. 지금 당장 해치워야 한다는 느낌이 일어난다. 이런 때는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처럼 반응하지 말고, 이 모든 생각과 계획, 판단, 자기 대화가 마음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과정을 하늘에 떠가는 구름처럼 바라본다. 명상 수련을 또 하나의 '해야 하는 일'로 만들지 않는다. 명상 수련은 또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8주 마음챙김 프로그램에서 각 세션의 시작 전에 수련에 임하는 의도와 해당 세션의 전체적인 의도를 상기시킨다. 마찬가지로 독자 여러분도 수련을 시작하는 매주 관련 챕터를 찾아 읽기 바란다. 8주 프로그램의 각 주에 해당하는 관련 챕터를 읽으면 매주 새로 추가되는 수련법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수련을 반드시 좋아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아니 좋아할 필요가 전혀 없다. 여러분이 할 일은 앞으로 8주 동안 판단을 일시 유보한 채 책에 소개된 지침을 따라 온 마음으로 수련하는 것 뿐이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마저 내려놓고 매순간, 매일, 매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단지 지켜보라.

자신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도인 수련은 당신의 삶에서 친밀한(그러나 관성적이지 않은) 일부가 될 것이다. 이런 의도를 갖고 하루하루 수련하라. 이렇게 할 때 새로운 것에 열린다. 모든 순간은 새롭고 고유하다. 우리는 언제라도 거기 다가갈 수 있다.

자기 자신에 오롯이 몰입하고 온전히 살아 있음을 깨닫는 모험에서 우리는 자신이 수련에 가져가는 바, 즉 투입만을 책임지면 된다. 반면 그에 따른 결과는 어떤 의미에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어떤 결과도 각자에게 고유하며 그 또한 어떤 식으로든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다. 다가올 순간에 무엇을 보게 될지 누구도 미리 알 수 없다.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순간은 지금 뿐이다.

지금 이순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존재하는 것이 수련이다. 나머지는 알아서 되어갈 것이다. 다음으로 기억할 것은 하루 5분이라도 거르지 말고 매일 수련하는 것이다.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삶이야 말로 진정한 수련의 장이라는 점이다.

여러분이 규칙적이고 규율적으로 수련해 왔다면 풍요로움을 맛보았을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존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다는 바람을 일으켰을 것이다.

또 내면과 외면의 어떤 행위든 여러분 존재의 근원에서 흘러나오길 바랄 것이다. 이즈음에서 여러분의 생각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은 스스로 일으킨 수련의 동력을 지속하는 기술과 경험을 쌓았다. 이 수련의 동력은 여러분의 가슴이 본래 지닌 지혜와 더불어 여러분 자신의 마음챙김 수련을 앞으로도 안내하고 형성하며 심화시킬 것이다. 또 이 동력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여러분의 삶이라는 끝없는 모험을 온전히 껴안게 할 것이다.

우리 저자를 비롯한 오늘날 모든 명상 지도자들은 수련자들에게 바쁜 생활에도 매일 조용히 자리에 앉아 정식 명상수련 시간을 마련할 것을 권한다. 얼마나 오래 수련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행위와 분주함의 와중에 잠시 멈추어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수련하겠다는 의도이다. 궁극적으로 마음챙김은 얼마나 오랜 시간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 온전한 알아차림으로 존재한다면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심오한 치유력이 일어난다.

몸과 마음의 풍경을 제대로 알려면 자주 그곳을 찾아야 한다. 언제까지나 구경꾼으로 남기보다 아예 자신의 몸과 마음에 터를 잡고 '영주권'을 얻는 편이 낫다. 또 그곳의 언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려면 해당 언어 환경을 자주 접해야 하듯, 몸과 마음의 언어를 배우는 것도 규칙적인 수련으로 유창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규칙적으로 마음챙김을 닦으면 자신도 몰랐던 깊은 내면의 자원이 존재함을 알게 된다. 또 이 내면 자원에 체계적으로 접근해 자신과 타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내면의 지혜를 스스로 맛보았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20호 | 15 | 전면광고

손이 없다면 보물을 보더라도
가질 수 없는 것과 같이 믿음이라는
손이 없다면 삼보를 만난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득이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심지관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입종 동참안내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수강생모집

* 영혼치료 *
* 주역성명학 *
* 최면마스터 *
창원시 성산구 미래운명해법원
010-6586~8289

★검 색★

G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행자승, 스님 모십니다.

비구50세 이하
포항 원진사
010-3517-609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10-8721-2198

공양주 모십니다.

도심속 사찰
관음사
010-5736-1835

돈이 들어오는 건강·행운 비법공개

◈ 치우천왕 빨간속옷 ◈

선물 건강·성공·행운 "특수비법 책"
다음카페 : 치우천왕 정담 검색 농협 352-0796-0696-03 남여:5만원
문의 : 010-4500-8234 (정담)

** 희망소식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우울증, 공황장애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 되는 병
기공, 퇴마, 천도 미륵사 주지 청원
010-3111-9056

기도의 신

원하는 대로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명 리 · 육 효 강 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고질적 영가 빙의, 산소탈, 무병 등등 단 한번에 제거하는 방법 전수합니다!!

• 단 한번의 전수로 터득됩니다(제령)
• 천도제때 활용하면 쉽게 천도됩니다(천도)
•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일체 재앙, 질병이 소멸됩니다.
• 저렴한 비용

문의 010-3514-7084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목요일 정오12시~6시 [월 4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732-1520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2009년 보이차 숙차(노동지 병차) "9978"[357g] 식약청 정식 통관제품



전통적인 맹해 차창의 7572 배방방식으로 오랜동안 보관하셔도 좋고, 바로 드셔도 그 맛과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한정수량 특별판매가
▶ 노동지 병차 [숙차(357g)] 1개 ····· 55,000원
▶ 노동지 7자 병차 [숙차(357g) x 7개] ····· 308,000원

■ 식품유형 : 단일침출차 (보이숙차) ■ 중량 : 357g ■ 원산지 : 중국 운남성 ■ 생산일자 : 2009년 1월 6일 ■ 제조원 : 안녕해만차업 유한책임공사

문의:02-732-1520 마하몰 (www.mahamall.co.kr) 계좌번호: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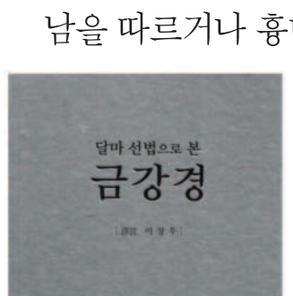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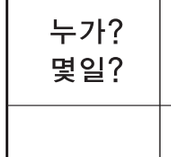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20호 | 16 | 전면광고

바닷물은 여러 강에서 들어오지만
맛은 다르지 않듯이 부처님 법 또한
그러하다.



부처님 말씀 읽기 - 《화엄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300평
◎ 건평 : 100평,외
◎ 시내중심,공원옆,주차가
◎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도
◎ 대지 : 200평
◎ 건평 : 90평
◎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9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토 굴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지 660평. 남향. 요사채 포함 ● 11동. 무건물. 법당 25평. 2017년 건축 ● 현재사용 : 천평(약수물. 각종 유실수 다량) ● 사륜구동차량 진입가능(주차장) ● 가액 : 3억 5천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후 결정

010-7584-8338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 가액 : 5억 5천(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3128-2399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 가액 : 3억 5천

010-2720-1580

◈◈◈
최고의 명당
백두대간 끝자락
호수전망 최고
버스 마당까지 진입
산청군 단성면
◈◈◈

010-4752-0459
010-4492-3479

사 찰 안 내

● 위치: 김천시 구성소재, 황금동 10분대(교통편)
● 법당 약20평, 주방 · 거실1, 방2, 세면장, 화장실, 벽돌조 32평 독채, 등기필(사찰등록필)
● 대지(도지료 1년 35만원)공동사용
● 남향, 교통좋은 포교지(남김천대로변) ● 가액 : 4천 5백만원

010-7295-1259

사찰안내 (부동산 절대사절)

● 위치 : 김해, 건물 : 60여평
● 가액 : 37억
● 토지 : 임야(98,100평), (2차선 물고 산속 1km까지 폭 3~4m 포장도로)
● 용도 : 현재사찰, 청소년수련장, 주간 요양보호센터, 요양원, 산림욕장, 버섯 약초재배, 수목장등

● 위치 : 경주, 대지 250여평
● 가액 : 3억 1천
● 건물 : 법당 30여평 1동, 요사채 2동 (2층및 1층), 종무소 1동
● 편의 : 버스정거장 도보 3분, 동대병원 차로 10분, 2차선에서 200m, 민가 4채 끝자락의 산 밑, 정남향, 마르지않는 1급 청정수, 수도 有

특기 : 김해 물건 매입시, 경주 물건은 기부함(단, 법인체에 한함)

010-5460-6503

토 굴 안 내

● 위치 : 파주시 문산읍
● 대지 : 104평
● 건물 : 30평(법당, 요사채, 9층탑)
● 전세금 : 3천만원
● 시설금 : 2천 5백만원

010-8567-36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서창
● 대지 200평, 자연녹지 약 930평, 건평 120평 3층, 부속건물 약 20평
● 용왕당, 산신각, 넓은주차장
● 경전철 역세권
● 가액 : 22억중 대출 9억

010-4492-347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55평 ● 요사: 75평
● 대지: 500평 ● 임야: 4천평
※ 지하150m 석수 1일 200톤이상 생산가능
● 가액 : 11억(대출 2억5천 포함)

010-4547-002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 2층 65평
● 법당, 방3, 공양실
● 보증금 500, 월 35
● 권리금 2천만원

010-3715-269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 171) 대웅사
● 토지 : 5,830평(종교용지 1,700평, 산168-2번지 4,130평)
● 건물 : 대웅전1동, 요사채(1,2층)1동, 기도방1동(납골당용)
● 특징 : 백병산 중턱의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매수조건부 장기임대(매수대금 분활상환가능)
● 가액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

포교원(급)안내

◈◈◈
동대문구 왕산로
60평 11년차
◈◈◈

010-3714-1018

사 찰 안 내

● 경주시 인근 전망최상 명당 사찰앞 연못 ● 대지 : 400평(법당 40여평, 요사채2동 약70평), 주차장 200평, 전 · 답 · 임 합계 약 1250평
● 통일신라시대불상으로 간주에는 좌우면에 합장한 공양불이 부각, 높이 2.6m, 무릎폭 1.6m, 어깨폭 1.1m
● 가액 : 5억

010-3524-00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금곡면
● 대지 : 405평
● 법당 20평, 산신당5평, 요사, 방5개, 건물5개, 화장실2개, 주차공간 많습니다.
● 가액 : 2억 8천
● 부동산 사절

010-7506-860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4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50만원
● 시설금 1천 5백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포 교 원 할 분

● 서울 강서 화곡동 소재
● 2층건물에 2층, 20평, 정남향코너 시장옆
● 보증금 4백, 월 40
● 권리금, 부가세 없음
● 건물주가 협조함

010-5381-1419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림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 기사제보 |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행 스님

머리로 굴리지 말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 마음에다 놓으라

이 중세계에서 벗어나려면

질문 큰스님 법문에 보면 이 중세계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중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문리가 터지고 이렇게 저거 하면 이 중세계를 벗어나게 되거든요. 중세계를 벗어난다 하는 건, 우리가 곤충으로서부터 인간까지 된 거는, 이 인간도 말하자면 곤충의 주머니예요, 이게. 곤충의 주머니. 그런데 독의 곤충의 주머니냐, 선의 곤충의 주머니냐, 이거에 따라서 이 곤충의 주머니가 벗어지고 곤충의 주머니를 더 만들고 이러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없었다면 우린 이 산하대지가 전부 새카만 그냥, 뭐라고 말을 해야 옳죠? 허허.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게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또 불에서도 살고, 캄캄한 데도 살고, 모두 사는 게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니까 이 공부를 어서어서 해서 이 벗어나는 데만 노력해라. 그렇다고 해서 인정을 베풀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살면서 항상 그렇게 베풀면서 자기 정신계의 자기, 자기를 꼭 붙잡고, 물질계의 자기는 정신계의 자기를 믿고 오직 거기다 맡기고 길을 걸어라 이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이왕지사 태어났으니.

그래서 태어났으니까 상대도 있고 종교도 있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있지 아, 당신이 없다면 뭐가 있겠어요? 부처님과 사대 성인들께서 간략하게 "네 나무는 네 뿌릴 믿어야 공덕이 있느니라." 아주 간략하게 "딴 나무에서 네 나무에게 에너지를 보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네 뿌리에서만이 네 싹을 돕는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우리가 지금 절에서 공양 올린다 하는 것도 이게 전부 가르치는 도의 길입니다. 말은 그럭하면서 그 뜻이 뭔지 몰라서 걱정이죠. 우리가 "꽃공양" 이러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벌어질 때에 꽃만이 있었겠습니까? 나무도 생기고 전부 생기고 자꾸자꾸 형성돼서 그게 진화됐으니깐 인간이 무척 오래 전에, 오래 있다가 인간이 나온 거죠. 그 기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걸 벗어나려면 이게 모두가 공해서 공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야, 이게 한마음으로서, 공심으로서 공양을 올려야 공덕이 되지, 공심이 아니고 그냥 갖다가 삐쭉…. 공양을 올릴 때는 딴생각 없어야 돼요. 벌써 머리에 떠오르는 게 내 아들, 내 남편, 뭐 뭐 이런 게 생기지, 이 꽃공양을 한다는 거는 생각지도 않아요. 이거 그냥 갖다 놓으면서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 이게 적응이 됩니까? 이게 공덕으로 적응이 되냐고요?

이 마음도 그래요, 벌써 쌀을 갖다 놓고 초를 켜고 그럴 때 이 촛불을 켜는 게, 내 마음의 불을 켜고 나면 내 이 몸이 타서 깎아지는 듯한 그 애처로운 마음으로써, 그 공심으로써 공양을 올려야지, 부처님께서 공심인데 내가 공심이 아니면 어떻게 맞아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공심으로써 공양을 올릴 때에 촛불을 하날 켜도 내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돼서, 그 촛농이 떨어지는 대로 내 몸이 깎아진다는 거를, 그거를 다 놔 버리면서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공양, 공양" 하는 거죠. 이 이 발우공양도 공양이라고 그러죠? 왜 공양이라고 그랬느냐. 스님네들만 앉아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스님네들은 곤충의 바가지예요. 중생들의, 즉 말하자면 주머니들이죠. 그 주머니 구녁 뚫린 데로 그거를 넣어요. 허허. 그러면 거기서들 죄 발라서 제가끔들 모두 먹어요. 그러고 자란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자라느냐. 이 사람 하는 행동 따라서, 저이, 의식도 다 거기에 따라서 가거든. 먹기 싫어도 "주는 대로 먹어." 그러고선 넣어 준단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니까, "살기 위해서"라는 것도 없고 그냥 살았으니깐 살기 위해서 우리 먹는 거죠. 그런데 그게 주머니라는 걸 몰라요, 모두. 곤충의 주머니라는 걸 하나도 납득을 못 해요. 그래 그 구녁 뚫린 데다가 넣어 주는데 어떻게 내가 먹는 겁니까? 이 주머니가 먹는 겁니까? 이 주머니 속의 곤충들이 먹는 거지.

그러게 악의 독이 있는 곤충의 주머니냐, 독이 없는 곤충의 주머니냐, 여기에 따라서 또 많은 문제가 생기죠. 독이 있는 주머니에서는 독성이 생산이 되는 거고 독이 없는 주머니에서는 독성 있는 데 잡아먹히고 이러더라도 선의가 발생되는 거고 그런 거죠.

우리 인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인간이 아주 적었을 때는 어디 가면은 하다못해 까마귀들이나 이런 벌들, 개미들, 박쥐 뭐, 그런 것들도 사람만 만났다 하면 금세 와 덤벼서 금세 금세 없어졌답니다. 그것도 그 박쥐는 박쥐대로 먹고서는 그래도 뼈따귀는 남기니까, 껍데기는 남기고 그러니깐 뭐, 딴 것들이 먹고 이렇게 하지만, 이 개미라는 거는 뼈따귀 속에까지 들어가서 다 먹어 치워요. 이게 곤충의 주머니예요.

이게 곤충의 주머니에서 한번 벌어졌다 하면 정말…. 그래서 요즘 내가 이렇게 말을 하죠. "정신계에서 정신을 뺏어 먹고 사는 거니깐 정신을 뺏기지 않으려면 정신계의 내 주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거요. 정신을 뺏어 먹고 정신을 뺏기고 이렇게, 육이 있는 거는 육을 뺏어 먹고 죽이고 살지만 이 사람들은 정신을 뺏기고 그때서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스러지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곤충의 주머니를 다 벗어 버리기 위해서 모든 거를 내 자체가, 내 생각 자체가 그대로 놓고 가야 한다. 그대로 남을 섭섭지 않게 해야 한다. 말을 항상 조심해서 그냥 해야 한다. 똑같은 말이라도 말을 성을 내고 하면 이쪽도 감촉이 좋지를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거 하면은 이 곤충은 빨리 이게 진화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빨리빨리 되려면 그렇게 해서 이게 둘이 아니가 돼야 된다.

이 마음공부 하는 분들은 반 이상이 벌써 다 줄고, 어떤 분들은 반이 줄고, 어떤 분들은 삼분의 이가 줄고, 이런 분들도 그냥 요만큼 남고 다 줄어 버리고 없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이거는 누가 일러 줘서 아는 게 아니라 벌써 이게 통하거든요, 다. 감촉으로 다 통해요. 악성은 악성대로 통하고 선의면 선의대로 통하는데, 악성은 악성대로 왜 선의로다가 이끄느냐. 독을 빼면 선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독성을 빼기 위해서 이런 거를 저거 하면 독성이 다 없어지면서 이것이 99%가 부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에 이 중세계를 떠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속에 들어 있는 곤충들도 자기 모습이니까 모든 거를 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꼭 둘이 아니라는 것만 아셔야 됩니다. 모두가, 귀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둘이 아니에요. 나는 귀신이 나온다 이러면 그 참, 보이지 않는 데 어떠한 귀신이다 어떠한 신장이다 어떠한 뭐다 하더라도 겁 안 나는 게 뭐냐 하면 산 사람도 산 귀신이에요. 허허허. 죽은 사람은 죽은 귀신이고요. 그런데 산 귀신이 더하지 죽은 귀신이 더하겠습니까? 그럼 죽은 귀신이나 산 귀신이나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깐 그 귀신은 귀신끼리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깐 항상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라." 이런 거예요.

정신계에서 귀신같이 노는 거는 전부…, 이거 보세요. 공에다가 그냥 모두 집어넣으면, 공을 집어넣으면 뭐가 남습니까, 거기. 공에

☞ 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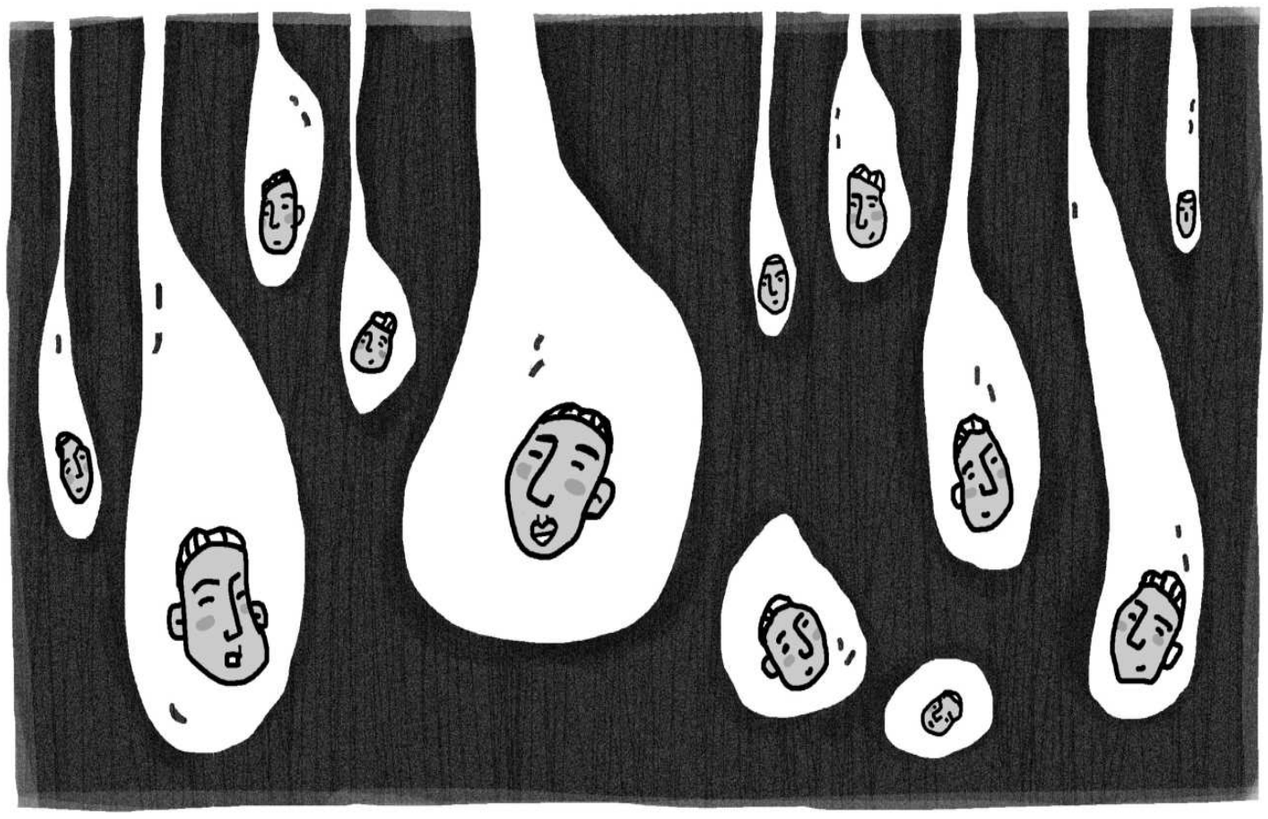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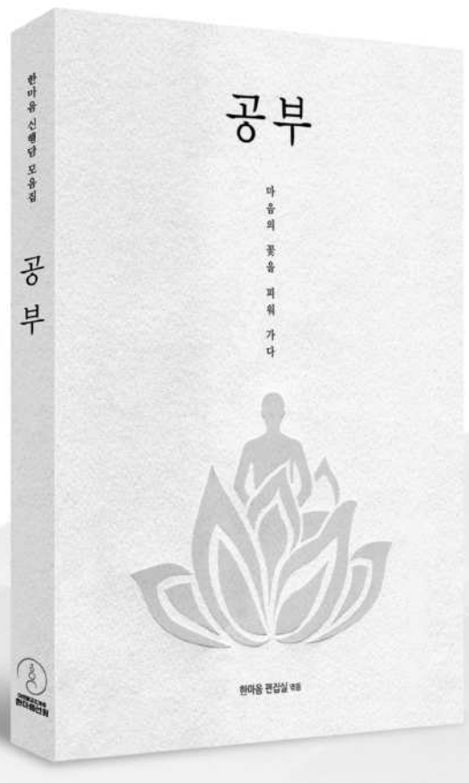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그 근본에다가 하나하나 놓고 가라

☞ 17면에서 계속

다 공을 집어넣는데 그 얼마나 빨라요, 글쎄. 사람들이 그냥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까짓 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너 있으면 나 있고 나 있으면 너 있고 모두가 둘이 아닌데 말이에요. 세울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모든 게 그런데, 모두가 둘이 아닌데, 이 컵과 컵이 둘이 아니라면 한 컵이, 자기 컵 하나가 자기 컵을 깨트리겠습니까? 마주쳐야 깨트려지지. 그걸 명심하세요.

하여튼 여러분, 이 사람으로 치지 마시고 곤충의 주머니로 치시고 항상 '그 곤충 주머니나 곤충이나 둘이 아니고, 모두가 우리도 이런데 모두 딴 사람들도 다 둘이 아니겠지.' 모두가 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때에, 바로 믿어지는 게 있어야만이…. 그 믿어지는 거, 그 방망이 하나면 이 온 우주를 때려잡고도 남음이 있어요. 이거, 이 방망이요! 이 주인공이라는 자기 뿌리인 불성 말이에요. 이거면 이 세상을 다 잡고도 남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마음의 주장자 세우고 싶어요

질문 이제 겨우 마음공부에 인연이 된 초심자입니다. 근데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데 마음으로 진짜로 관해지지 않고 머리로 관해지는 것 같거든요. 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주장자를 세우고 싶습니다. 한 말씀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금은 모두 이 법문이 다 나가고 그러는데 그거 열심히 하려고만 한다면, 내 생활 속에서 하는 거니까, 생활 속에서 24시간 하는데, '내 몸이 송장인데 저 주인공 자불이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나를 움죽거리게 하니까 모든 것이 그놈이 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24시간 움죽거리고 자고 깨고 하는 거, 앉았다 서고 하는 거, 일하는 거 모두가 그렇게 하면 참선이 됩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 정말 공마당을 만들려면 자꾸 거기다가 놓고 가야 그것이 더불어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게을리 생각 마시고 몸은 앉았다 하더라도 마음은 게으르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몸은 비록 앉았으나 마음은 뛴다는 얘깁니다. 지금은 뛰지 않으면 안 되죠. 뛰지 못하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송장이 되기 때문에. 체가 없기 때문에.

인생의 황혼 녘에 접어들게 되니

질문 이제 나이가 들어 인생의 황혼 녘에 접어들게 되니 자식, 며느리들에게 괜히 서운해지고 외로운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주인공 줄 놓치지 않으려고 새벽 예불 시간에도 열심히 나가고는 있는데 허전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이 마음이 충만해지고 여여해질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하나하나 놓고 가라. 어떠한 거든지 용도에 따라서 그냥 놓고 가거라. 그냥 놓고 가라. 그 근본에다 놓으면 다 된다. 더 위로 올라가서 내가 더 알려고 하지도 말고, 더 내려가서 모르지도 마라. 오직 거기 근본에 직결되어 있는 그 자체에만 놓는다면 그대로 한생각에서 가정의 12대 종손까지도 모두 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 지혜를 넓혀 주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다가오는 자기 공부 재료를 막고 '나는 이런 거 싫다.' 이러는 거거든요. 한생각에서, 무슨 돈을 들여서 많이 차려 놓고 하는 것보다도 한생각에서 하는 게 제일 빠르다, 빠르다 이렇게 가르쳐도 여러분은 그렇게도 모르고 그저 남한테 기대고 말입니다, 네?

모두 사람들이 연세를 잡숫고 나이가 들고 그러면 남한테다 의존하는 마음도 생깁니다만 의존하는 마음이 더욱더 없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의존하는 생각이 있다면 모든 게 비틀어지고 모든 게 속상하고 내가 해 달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아이고, 불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나대로 더 비참하게 되고 나는 나대로 더 힘이 줄어들고 병이 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생각에 따라서 일어날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는 거고, 병이 들 수도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절대적으로 아주 죽을병이 들었을 때, 더욱더 그것은 자기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애원하고 여러 식구를 등에 업고서 걸음을 걷는데 무겁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면서 '여러분이 다 자기 자신의 자성을 알고, 의식에서 벗어나고 몸에서 벗어나고, 끄달리지 않아야 진리 속에서 여러분이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고 세계를 거둘 수 있고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그런 삶에 대한 보람을 느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인공을 믿고 이렇게 찾고 그러는데, 찾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본래 있으니 발견하라' 이런 소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모순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은 주인공을 머리로 굴리려고 한다 이겁니다. 내가 이번에 철저히 여러분의 마음을 검증했습니다. 여러분이 머리로 굴리는 경향이 즉 30%, 20%는 되더라 이겁니다. 머리는 쉬게끔 내버려 두고 마음으로써 뜻을 가져라 이겁니다. 믿음의 뜻! 뜻으로 내고 들이고 하는 거지 머리로 굴린다면 머리가 고장이 나요. 머리로 굴리는 게 아니라 믿는 것도 마음이요, 굴리는 것도 마음이요, 들이고 내는 것도 마음이요, 네? 마음에다 하면 절대로 고장이 나질 않아요. 머리로 굴리니까 머리로 산발이 돼서 바깥으로 내닫고 머리가 도는 사람도 있고 별사람 다 많은 거 아닙니까! 딴 짓들을 하고.

옛날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주인공이 나가라고 그래서 나간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온다 요런 소릴 하는 거예요. 그래 주인공이 나가란다고 나가고 들어오란다고 들어오느냐. 상황을 봐야지. 지켜보는 놈은 누구냐, 한 발 딛고 받치고 굴리는 놈은 누구냐 이겁니다, 굴리는 놈. 이것이 내가 해서 누(累)가 될 일이냐, 누가 안 될 일이냐? 이것을 해서 내가 이익할 거냐, 이익지 않을 거냐? 이것을 해서 남이 보기 좋은 거냐 보기 나쁜 거냐? 이런 거를 지켜보는 여러분이 있건만, 무조건 주인공이 하란다고 나가서, 바깥에 가서 춤을 추란다고 춤을 추시겠습니까? '저 바깥에 나가서 춤을 춰라.' 주인공에서 그런다고 하면 '허허! 내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테스트해 보는구나. 참 감사하구나.' 좀 이렇게 다시 굴려서 되놓을 줄은 왜 모르느냐 이 소립니다.

그렇다면 여기 와서 공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노예가 돼서 그냥 살지. 이렇게 노예 짓을 하나 저렇게 노예 짓을 하나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머리로 굴리지 말라. 모든 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 마음에다 놔라." 하는 거.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대로 하는 건 노예생활로 접어드는 길이다.

여러분이 값싸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대한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항상 내가 든든하더라도 한 번 더 딛고 한 번 더 흔들어 보는 그런 조심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항상 믿는 마음이,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한시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나 깨나. 그렇다고 해서 자나 깨나 손을 한데 모으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 몸짓 발짓 하는 거, 난 싫어요. 왜? 귀신인가? 아주 진득하고 무겁게, 이 세상을 다 들어서 놓는 것처럼 무겁게 한마음 뜻으로다 놓는다면, 이 세상이 흔들려도 여러분의 마음 그 자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얘기한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머리로 굴리지 않는다. 모든 건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마음에다 놓는다. 믿고 물러서지 않는다. 그건 개별적인 자기가 아니라 포괄적인 자기다. 근본이다.' 이런 거 말입니다.

벌써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알겠지만 이 몸에 들어 있는 의식 자체들이, 모습 자체들이, 생명 자체들이 내가 모든 것을 '나와 너와 둘이 아니다' 그러곤 한마음으로 이렇게 해 준다면, 한 회사에서 "회장이나 사장이나 공장장이나 전부 우리는 한 도반으로서 한 식구다. 그러니깐 이렇게 벌어서 우리 같이 먹고 같이 살자." 이런다면 아, 누가 뭐랍니까? 누가 싸워요? 그러면 내 몸 안에 들어 있는 의식들이 파워를 일으키지 않는단 말입니다. 파워를 일으켰다가도 그렇게 다 갖다가 한마음으로 놓는다면 거기에서 '어, 난 죽을 수 없어.' 이럽니다. 왜? 자기가 자기 죽일 순 없거든, 자기니까. 곧바로 자기니까. 그렇게 수효가 많은 이름을 가졌는데도 전부 자기야.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죽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 죽일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어떤 때는 그냥 얼굴을 시커멓게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여러 분 보죠. '에이, 저건 마음 한번 돌리면 저 속에서 전부 의식들이 그냥 한마음이 돼 주어서 파워 일으켰던 것 다 원활하게 만들고, 또 세포가 부패됐던 것이 모두 원활하게 되면 저 얼굴이 그냥 뽀얗게 하얗게 될 텐데….' 허허, 이렇게 아쉬운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고 상대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나지 않고 무슨 부처가 필요 있고, 무슨 이 세상이 필요 있고, 상대가 필요 있고, 사랑이 있으며 의리가 있고 도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그 정신을, 마음을 어떻게 해 가지고 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나도 여러분과 같은 몸뚱이를 가지고 있고 눈코 달린 것도 같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어땠으며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 마음 차이입니다.

> **아주 진득하고 무겁게, 이 세상을 다 들어서 놓는 것처럼 무겁게 한마음 뜻으로다 놓는다면, 이 세상이 흔들려도 여러분의 마음 그 자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모르는 병들이 계속 생기는지

질문 요즘은 의료 기술의 발달로 웬만한 질병은 거의 치료가 되고 있는데도 원인 모르는 병들은 또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병들이 계속 생기는 것일까요?

답변 아무리 과학자들이 발견을 해냈다고 하더라도 그건 물질을 발견해 낸 것이지 어디서, 왜, 어떠한 연관성으로 인해서 이것이 왔느냐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해서 그 불치병을 고쳤다 하더라도 그건 바뀌어져요. 이름이 다른 걸로 바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으로서의 심성에 의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것을 녹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입력이 된 데다가 입력을 다시 넣어야 입력이 없어지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 바로 "나부터 알아라." 한 것이 그 때문입니다. 나부터 알아야 모든 게 가고 옴이 없이 왕래가 되죠. 내가 나부터 알아야 모두가 일치돼서 같이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태양으로 들어갔다 합시다. 내가 태양이 됐다고 해요. 태양이 돼 가지고 그 태양계를 본다면 전부 그게 그거니까 그 속에서 다 알게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가고 옴이 없이 왕래하지 못한다면, 어디서 나온 줄도 모르고, 어디서 된 줄도 모르고, 어디서 온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밝혀냈다고 해서, 그 병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해서 그게 밝혀진 게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식물에 벌레가 자꾸 끼니까 독한 약을 줘서 다 죽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 벌레가 벌써, '아, 저런 거를 뿌려서 이러는구나.' 하고 알았단 말이에요. 알고서는 안 죽어요. 그리고 딴걸로 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천차만별로 인과성이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세균성이라든가 영계성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사람의 정신이 모두 혼미해지고 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즉 말하자면 지금 병명들도, 발견한 사람들이 간암이니 백혈병이니 뭐니 뭐니 쭉 이름을 내놓은 거지, 그게 본래부터, 전자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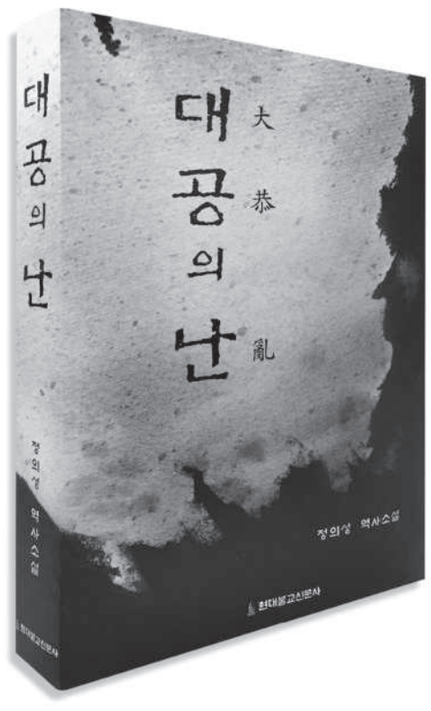
아무리 백혈병이다 골수암이다 해도 그것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름이니까요. 그건 이름이라고. 내가 다스릴 수만 있다면, 내 마음으로써 내 육체 안에 들어 있는 그 모든 의식들을 다 흡수해서 작용할 수만 있다면 암이다 뭐다 하는 건 이름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작용하는 거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똥 마려우면 똥 눌 뿐이에요. 그와 같은 거죠.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마하몰 02)732-1520



용수 스님의 아침편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눈을 감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가치가 없다는 사고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무한한 참본성을 늘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자연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부정을 키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자신을 늘 격려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Try, try, try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원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태어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왜 행복한지 생각해보세요. 매일 참된 행복을 찾고 연습하세요. 애쓸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진광 스님의 길 위의 풍경들

㉓ 요르단 암만과 페트라

희망이란 길을 찾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비행기로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에 도착해 숙소로 향했다. 언덕위에 자리한 호텔에서 바라다보는 밤하늘의 별빛들이 모두 지상으로 내려와 야경을 이루는 듯, 이국적이면서도 아름답기 그지없다.

다음날 새벽 우린 요르단이 자랑하는 세계문화유산이자 스티븐 스필버그의 '인디애나 존스 - 성배의 성전' 의 무대로 유명한 페트라 유적지로 향한다. 가는 길은 가도 가도 끝없는 황량한 사막과 불모지이다. 이따금 몽롱한 가운데 푸른 호수가 보이지만 그것은 허망한 신기루일 따름이다. 얼마나 많은 대상들과 수도자들이 헛된 신기루의 유혹에 이끌려 그르쳐 갔는지 모른다.

가는 길에 어느 동네에 들려 요르단인들이 자주 먹는 화덕에 구운 빵을 사서 대중과 함께 먹었다. 예수의 '오병이어(五餠二魚)' 의 기적 속에 나오는 바로 그 빵일 것이다. 밥 혹은 빵을 나눈다는 것은 바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리라. 빵이 예수의 몸이라면, 밥은 곧 부처(佛)이자 진리의 법(法)이라고 생각한다.

산꼭대기의 전망대에 올라 사방을 조망해본다. 요르단의 작은 '그랜드 캐니언' 으로 불리는 아르논 계곡(현지어로 와드무집)이다. 모세가 '출애굽기' 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위해 마지막으로 건넌 곳이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천화(遷化)하고 만다. 마치 그때의 그 모습인양 돌연 바람이 일어나 계곡을 넘나들며 내양 볼을 스치며 지나간다. 이것은 실로 바람의 울부짖는 처절한 절규이자, 고통과 번뇌와 희열의 드라마이자 서사시이며 또한 교향곡을 연상케 한다.

드디어 페트라(Petra) 유적지에 도착해 간단한 점심 식사를 했다. 그리고 근처를 돌아보니 어린 아이들의 티 없이 맑은 눈동자와 환한 미소, 그리고 곱고 아름다운 마음씨가 여실히 느껴진다. 특히 그 맑고 푸른 눈동자는 바다나 호수와 같아 첨벙 뛰어들어 그 속에 빠져버리고 싶을 정도이다. 예쁜 아이들의 미래에 자유와 평화가 항상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소망해마지 않는다.

페트라는 옛 나마테아 왕국의 수도로 향료교역으로의 중심지이자 아라비아 해안의 대상무역로의 중심지로 번성한 도시이다. 이후 몰락해 역사속에 사라졌다가 1812년 스위스의 요한 루트비히 부르크하르트가 발견하여 세상에 알려졌다. 영국의 시인인 존 버건 신부는 이 도시를 가리켜 "영원한 시간의 절반만큼 오래된, 장밋빛처럼 붉은 도시"라고 노래할 정도였다.

10여 년 전 이곳을 방문했을 적에 게스트 하우스에서 한국인 창수 씨가 적어 놓은 여행후기를 보았다. 세계문화유산인 까닭에 입장료가 4만원 정도로 비싼 까닭에 몰래 들어가는 도둑관람의 노하우를 적어놓은 것이다.

우선 새벽 5시 이전에 담을 타 넘어서 진입해 손전등을 켜고 사암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걷다가 유적이 나타나면 근처 동굴로 숨어든다. 그리고



페트라 유적의 하이라이트인 '일 카즈네 신전' 스케치.

일 카즈네 신전, 페트라의 '백미'
웅장함 매료… 여러 사색이 절로
수행자, 그 길서 최초 · 최고 돼야

동굴에서 MP3 음악을 들으며 버티다가 관광객들의 소리가 들리면 슬그머니 나가서 합류하는 것이다. 만약 현지 베르베르족에게 걸리면 대응전략까지 적어 놓았다. 절대 나라 망신이니 한국인이라고 하지 말고 일본인이라고 말하라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나의 첫 페트라 여행은 일종의 창수투어가 되어 버렸다.

이번에는 9만원 가량의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 천천히 걸으며 여유롭고 당당하게 관람을 시작하였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세계문화유산은 턱없이 싸다는 느낌이다. 민족문화의 자존심 차원에서라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참을 가다보면 깎아질 듯 한 사암 절벽이 양옆에 기립한 채 우리 일행을 맞는다. 마치 이백의 '촉도난(蜀道難)' 이란 명시의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사암의 절벽사이로 하늘이 손바닥만 하고 절벽에는 동굴집이 위태롭게 걸려있다.

그렇게 구절양장의 좁은 길을 돌고 돌면 갑자기 페트라 유적의 백미인 일 카즈네 신전이 신비롭고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천지개벽 하듯이 나타난다. 장밋빛 사암을 정교하게 깎아 조성한 이 신전은 높이 40m, 너비 28m에 이르는 천의무봉의 솜씨이다. 그 앞에 자리하면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말문이 막힌 채 그저 감탄과 경외를 금할 수 없다.

몇 년 전 방송된 '미생(未生)' 이란 드라마의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알 카즈네 신전을 배경으로 촛불을 밝히고 주인공이 걸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때 나래이션으로 나온 것이 바로 중국의 대문호인 루쉰(魯迅)의 소설 '고향' 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단언컨대, 수행자는 삶과 수행의 그 길 위에서 최초이자 최고가 되어야만 한다.

페트라 유적을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에 사막의 지평선 사이로 태양이 장엄하게 진다. 그리고 연이어 무수한 별빛의 향연이 이어진다. 사막의 길잡이는 북극성이란 별빛이다. 우리시대의 양심인 신영복 선생이 서여 민영규 선생의 '예루살렘 입성기' 중에서 인용한 '지남철(指南鐵)' 이란 글귀가 생각난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 지 항상 그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여윈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도 지남철처럼 강렬한 촉수(觸手)를 간직하고는 냉철한 이성과 따스한 감성으로써 세상과 사람들, 그리고 진리를 향해 더불어 함께해야만 한다. 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며 최초이자 최고의 길을 이끌어야 한다.

〈조계종 前 교육부장〉



절집에서 띠삼재, 풀이, 기도, 부적이라니…

불 · 법 · 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선재불교대학) 도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 내)
☎ 055)633-6555

얼마 전 지방 불교방송에서 재가불자가 지금 전 세계를 불안과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코로나19. 이것은 부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대재앙의 삼재 중 소삼제에 해당하는 질병재(疾病災)임을 우리 불자들은 알아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부처님이 일찍이 경전에서 2500년 후 (현 2542년) 정법이 사라진 말세(2500년)가 오면, 우리 중생들의 탐욕으로 지구의 괴멸로 인한 자연의 대재앙을 예고하셨다. 이것을 크고, 작은 출가수행자들이 부처님 유지를 잘 받들어 바르게 실천해 왔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방송 스타급 ○님, ○사들이 방송이나 법문, 강연 등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눈치 보지 말고 바르게 알렸어야 했는데, 실제하고 있는 것은 어느 눈 푸른 납자가 한국불교는 돈만 챙기고 있다고 했듯이 1년 내내 잡귀행상인 사주, 삼재풀이, 부적, 기도(운, 재수, 대학합격, 승진), 인등, 방생, 성지순례 등을 하면서 또 경내 다른 공간에서는 말과 글로만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으며, 어떻게 쓸 것인가?

이뭣고(이 무엇인고), 비워라 그러면 보일 것이다 등등.. 정법, 정법하면서 이것이 정법이라면 이 환란이 겉잡을 수 없을 때 불보살님께 고해보라. 지금의 상황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었고, 이때야말로 우리가 대자비로, 대어버이로 칭송하는 불보살님과 모든 성인의 권능과 신들의 힘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평소에 한 행위를 봐서는 불보살님 앞에 고하기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왜, 띠삼재, 부적 등 잡귀 행상 말고는 한 것이 없다. 오로지 절에 가면 기도(합격, 승진, 재수, 운), 사업 성취 등등하면서 경쟁적으로 나와 내 가족 말고 한 게 있는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타행, 자비심, 보리심은 아예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이기심만을 부추길 뿐이다. 그러다 보니 예로 입시부모로써 우리 애가 떨어지고 옆집 애가 합격하면 질투 말고는 한 게 있는가?

미국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의 이런 말이 있다. '폭력(바르지 않은 것)을 외면하고 악을 말하지 않는 것 또한 악이다'

【사례① 희귀병】

금년(2020년) 추석을 10일 정도 앞두고 한동안 소식이 없던 보살이 전화를 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스님"하면서 찾아왔다. 그날이 23일이다. 그때서야 그가 몇 달 만에 온 것을 알게 되고, "그래 그동안 무엇을 하고 지냈나"고 묻자 그동안 몸이 아파 여태껏 M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온 것이라 한다. 왜,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고 하니 몸 전체가 아프다고 한다. 보니 몸도 많이 야위었고, 형색도 영락없는 환우의 모습이다. 빨리 기도 날짜를 잡으라고 하며 신도 중에 보살과 제일 가까운 친구를 보호자 삼아 불러 달라고 했고 그 보살하고 협의해서 기도날짜를 정하라고 했다. 참고로 이 보살은 조용하고 말이 없는 보살이다. 그렇게 해서 9월25일(금), 26일(토) 이틀간 새벽 예불시간에 오게 하여 기도를 해 주었고, 기도를 받고나면 집에 가서 그동안 아팠으니 푹 쉬어라 했는데 26일(토) 아침 공양을 마치고 친구와 같이 작업복 차림으로 온 것이다. 아니 왜 왔는냐고 물으니 "스님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하면서 스님 일을 거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그때 약 보름(15일) 정도 계획으로 법당 내,외부 청소와 일부 단청 및 도색작업을 하고 있었다. 혼자 23일부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반가우면서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27일(일)도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는 추석을 쉬러 가는 것이다.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법회에 잘 동참하고 있다.

【사례② 무릎 · 허리】

대구에서 9년째 일요법회에 월에 3~4회 참석하는 자매분이 있는데 그 중 동생분이 전화가 왔다. 언니가 다리와 허리가 너무 아파 울기만 한다고 하길래 바로 병원에 가서 일단 검사부터 받아보라고 하니 병원에서 무릎에 연골이 다 달아서 없고 일부는 너덜너덜해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리는 디스크 일환이기에 빨리 수술을 하자고 했고, 그 분의 남편을 비롯하여 가족 전체가 빨리 수술을 하자고 종용을 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 이 분은 오래(9년) 전에 인연이 될 당시 대구에서 학교 앞에 2층 건물을 갖고 있었고, 2층은 본인들이 살고 아래층은 점포가 2개 있어 그 중 하나는 세를 주고 하나는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 처음 대구에서 이곳까지 온 사연은 있지만 그런 얘기는 추후 직접 듣기를 바랍니다. 여기 연등사는 항상 절에 가되 사행행위를 배제하고 오로지 공덕과 복덕을 지을 수 있는 곳에 가라고 항상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생계도 유지하는 차원에서 직업을 갖되 공덕과 복덕을 지을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법문 시 많이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분은 가게를 바로 접고 스님 법문에 따라 지체부자유한 장애인 돌보기를 했는데 금년에 와서는 자주 통증이 수반되다 결국 장애인돌봄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는 그 고통을 스스로 이겨내기엔 한계가 온 것이다. 생로병사와 보왕삼매론 등 각 경전얘기를 해 주었으나 육체적인 고통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 이때 모든 불보살님과 더불어 성인들이 보고 있나니 힘과 용기를 가지라 하며, 다시 큰병원에 가서 MRI부터 검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빨리 수술 받으라 했다. 그날 통화가 끝나고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바로 수술하자는 것이다. 그 결과를 나에게도 연락이 왔길래, 나 또한 빨리 수술 받으라 했다. 근데 다음날 아침 일찍 택시가 한 대 절마당까지 와서 보니 그 보살이다. 허리는 구부정하고 다리는 절룩거리면서 법당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모습을 보니 황망하기 그지없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이 수행자가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왔으니 기도 받고 가라며 그 다음날 아침 기도를 해 주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앉고, 일어서고, 108배를 하고 법당주위를 빗자루를 들고 쓸고 있길래 물으니 합장하며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는 것이다. 이 일 역시 금년 추석 바로 직전의 일이라 마찬가지로 이 보살도 스님과 같이 25~28일(4일간)까지 절에 일을 하고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추석 지나고 첫 주 법회에 전 가족이 와서 합장하며 내손을 잡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했다.

* 장애인 돌보는 일을 3개월만 하게 되면 세상 근심, 걱정, 불평, 불만, 번뇌, 망상, 탐욕까지도 다 사라질 것이다. 여기에 무슨 00스님, 00법사 법문이 필요한가? 그들의 입으로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실천하지 않으면 말장난일 뿐이고 이미 죽은 것이다. 불법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는 바른 삼재를 알리기 위해 십수년 전부터 불교신문과 일반신문에 종교 칼럼으로서 많이도 알려왔고, 법문 중에서도 불교의 삼재(대삼재: 화재,수재,풍재/소삼재:기근재,질병재,도병재) 법문과 잡귀 행상인 띠삼재에 따르는 삼재풀이, 기도, 부적 등등은 철저히 배재하고 경전대로 바르게 실천하자고 하며, 모르면 불교사전을 보고 하면 될 것이라고 특히 입춘 법문에는 삼재 법문을 많이도 했었다. 이로 인해, 오래전부터 협박, 테러성 위협 등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것은 여기 신도들이 더 잘 알고 있다.

모든 경전에서 불보살님께서는 바르게 알리고, 바르게 실천할 때 나는 그와 함께 하며, 또 천룡, 팔부신장을 비롯 모든 신들을 보내어 그를 보호케 하리라.. 하는 것을 여기 신도들은 소문을 들은 것도 아니고, 너, 나 할 것 없이 많이도 체험했고, 또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보고 기적과 가피의 장면을 많이도 보았다. 여기 연등사는 환우 기도 시 법당에서 다 같이 기도에 동참한 관계로 다들 직접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각종 말기암, 전의된 암, 뇌경색, 백혈병, 조현병, 희귀병 등 전국에 수많은 환우들이 기적과 가피로 새 생명을 얻어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고, 참고로 초기암(1기,2기) 환우들은 병원 가시라고 한다.

2016년 한참 테러, 협박이 있을 때는 들개 5마리가 출현해서 몇 달간 연등사를 지켰던 일. (지금도 그 사진을 가끔 본다)

2011년에는 화단에 식재된 철쭉 약 500주가 해마다 흰꽃이 피길래 2016년 초파일을 일주일(7일) 앞두고 법당 문을 열어 흰꽃이 만개해 있는 화단을 전부 보게 하고는 내년 초파일에는 붉은 꽃이 보고 싶다고 하며 신도중 조경하시는 분이 있어 붉은색으로 교체하자고 했는데, 다음날부터 흰꽃이 서서히 붉은 색으로 변하며, 초파일날 화단 전체가 붉게 변한 사건 등등 (사진 있음, 확인가능) 이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 한 일이고, 오로지 불보살의 권능이 위대하심을 여기 신도님들은 잘 알고 있다. 여기 개개인들이 봤기에 속일수가 없는 일이다. 금년(2020년) 초에는 미리 지금 환란사태를 예견하여 법문 시 주지시켰고, 그에 따른 1차 기도를 통해 소납이 직접 인연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축원했었다. 여기 분들은 소납의 지도 원리에 따라 바르게 실천하고 있기에 이 환란을 이겨내며 빗겨나갈 권리가 있다고… 그리고 달이 지나자 코로나19라는 것이 뉴스에 방연된 것이다. 거리가 있어 오지 못한 분들은 녹음을 떠서 보내 주었다. 다시 2차기도(11.5 ~ 11.22)를 하였고, 3차 기도는 이번 동안거 기도기간 내내할 예정이다.

잊을 만하면 희소식이 들려온다.

이번에는 본체가 여우인데 양의 가죽을 쓰고 방송을 타며 전국을 다녔고, 인기에 걸맞게 여기 변방에서도 거금을 들여가며 초청 법회를 연다는 현수막을 안 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수행 정도를 알지 못하고 겉모습과 말장난에 이끌려 그를 유명한 배우로 만들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다. 글장사, 말장사하는 그의 책제목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라나 …. 그의 일상생활은 출가자가 아니다. 주거 공간을 비롯, 4억을 호가하는 애마(패러리) 모든 것 정리해서 신문사에 직접 대납해 주면 돈 걱정 안하고 글을 쓸 수 있겠는데….

※또다시 방송에 제안한다. 소문이 무성한 성직자, 방송 스타급 성직자, 크고 작은 절집과 유튜브에서 신통 방송하는 이들 출, 재가자 할 것 없이 모두 모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거늘 말은 그만하고 수행자 대회를 열어서 그들의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보자. 그렇게 하면 영험, 신통하다는 등 소문은 사라질 것이고 여기에 소문에 휩쓸리고 그들을 따랐던 무리들이 더 속을 일은 없을 것이다. 소문만 내지 말고 당당하게 수행을 통해 득 한 게 있으면 공개된 무대 위에서 보일 것을 또다시 제안한다.

※ 접수처 055-633-6555
연등사(선재불교대학) | **도 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우:53211)

사례자 연락처

- 010-4807-6932 (박 ○○)
- 010-8291-9423 (변 ○○)
- 011-9143-0098 (김 ○○)
- 010-3466-9991 (김 ○○)
- 010-5699-3173 (박 ○○)



❖ 본 내용은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